

1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28.62	↓ 코스닥	738.35
	(+16.28)		(-7.19)
↑ 금리 (미국 9년)	2.621	↑ 환율 (원-달러)	1453.95
	(+0.023)		(+1.05)

홈플러스 사태 후폭풍
연간 4000억
임대료 정산 차질
02



고삐 풀린 집값에 정부 '화들짝' 한 달 만에 '토허제' 확대 재지정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강남3구 이어 용산구 까지 규제
압구정·여의도·복동 등 인근지역
과열 양상 지속 땀 추가지정 검토
가계대출도 조여 투기 수요 근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들쭉이면서 시장 불안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완화의 일환이라며 일부 지역에 대해 토허제를 해제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

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관련기사 3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허제 확대 지정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위치한 모든 아파트다.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며, 필요할 경우 지정 연장

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압구정·여의도·복동·성수동 및 신통기 획 단지 등 서울시 내 기존 토허제 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지정을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출도 조인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이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위한 매매만 허용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껌투지는 할 수 없다. 개발 예정지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삼성전자 제56기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HBM 3E 12단, 빠르면 2분기 시장 주도"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중 저가 공세... 고부가 제품 대응
파운드리 3나노 수율 안정화 집중
AI 로봇 '볼리' 등 신규 사업 예고

"2분기 5세대 HBM(HBM3E) 12단 개선 제품 공급을 본격화하고, 6세대 HBM(HBM4)은 실기하지 않고 주도하겠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은 19일 경기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HBM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영진들은 주주들의 질타에 여러 차례 사과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과오를 되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 부회장은 HBM3E 공급 준비 현황에 대해 "현재 고객 피드백을 적극적

으로 반영해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빠르면 2분기 HBM 3E 12단 제품이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BM, DDR5, 서버용 SSD 등 고성능·고용량 제품에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부진이 지속되는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2나노 수율 안정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진만 파운드리사업부장은 "3나노 및 2나노 GAA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 중"이라며 "공정 최적화뿐 아니라 수율 안정화 및 랩업(양산 속도 개선)에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DX부문은 '차별화된 AI로 모두를 위한 인텔리전스 구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 등 차세대 기술 역량과

고객 중심의 혁신을 결합해 새로운 제품 경험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한중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DX(디바이스경험) 부문장은 "지난해부터 스마트폰·가전 등 전 제품에 AI 기술을 적용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홈' 부문에선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해 사용자 경험을 고도화하고 AI 컴패니언 로봇 '볼리' 등 신규 사업 모델도 예고했다. 로봇 사업 분야에선 사업장 내 제초봇, 키친봇 등을 추진하면서 유망기술 투자와 인수도 추진한다. 메드텍 분야는 의료와 IT 기술을 접목한 토탈 헬스케어 사업으로 확장을 추진 중이다. 냉난방공조(HVAC) 사업은 히트펌프 등을 앞세워 차별화하면서 글로벌 유통채널을 강화한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AI 등 3대 게임체인저에 3.4조 신산업 정책금융 75.4조 공급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

최상목 "미래 성장동력 구체화
트럼프 관세 리스크 최소화 만전"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추진을 위해 올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민간금융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75조4000억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고 주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 ▲보세기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성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한다"며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4월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예외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며 ▲관세·수입규제 대응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 신규 구축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강화 ▲우회덤핑방지 관세 부과 ▲철강 수입재 신고시 품질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 조치를 설명했다.

또 핵심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기공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세관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 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기간도 단축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 김문수 장관 "어려울 때 정부 채용박람회 확대 필요... 지역서도 해야"
▲ 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韓정부 관여 안돼... 美 연구소 방문객 민감 정보 부주의 취급" /사진 뉴스1

▲ 권성동,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적절한 조치"
▲ 유승민, 오세훈 '토허제' 재지정에 "文 바보 같은 실책 되풀이"

▲ 법사위, 야당 주도로 오는 26일 현안질의 명태균 증인 채택
▲ 외교부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간 국경협정 조약 환영"

‘연간 4000억’ 임대료 정산 차질… “채권규모 파악 못한 듯”

홈플러스 “임대료 지급, 소송인 필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연” 관련 펀드·투자회사 손실 우려돼

MBK “채임차 입장 정해진 것 없어 채권 신고받는 과정서 검토 필요”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홈플러스 경영진이 상거래 채권뿐만 아니라 유동화증권까지 변제하겠다고 나섰지만, 임대료 지급 정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홈플러스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부동산 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임대료 관련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지난 4일 홈플러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곳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공모펀드 ‘이지

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26호’다. 이 펀드는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홈플러스 전주효자점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해당 펀드는 폐쇄형 구조로, 만기 전까지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 특히,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단일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어 임대료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손실 위험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투자자들에게 “당사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가 본격화됨에 따라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펀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이외에도 비상장 리츠인 제이알투자운용의 ‘제이알제2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KB부동산신탁의 ‘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

사’와 ‘케이비평촌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홈플러스 임대료 매출채권 수취에 대한 불확실성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126개 중에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점포는 68개다. 연간 임대료는 4000억원 대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채권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상거래채권에 이어 유동화증권 채권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맡은 하면서, 정작 채권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 매각 후 채임차(세일 앤 리스백)에 관해 “아직은 여기에 입장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임대료가 아직 미납인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실사를 받고 있고 채권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 사태가 계속 확산되자, 마트 노조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홈플러스 지키기’ 국민대회를 열고, 기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쉼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트 노조에 따르면, 이번 국민대회에는 전국 홈플러스 노동자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3000명이 집결할 계획이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 지부장은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해 MBK의 행태를 폭로하고 저지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홈플러스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 마트 노조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홈플러스 사태 해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노조 측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국회 차원의 조사와 입법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신용등급 인지도시점,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홈플러스 관련 “TF 꾸려 대대적 MBK 검사 진행 최소 상반기까지 중점적으로 조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습적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논란이 된 홈플러스와 관련해, 대주인사 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19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집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MBK에 대한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도시점과 회생 신청 계획 시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법원 회생 절차에 따라 불공정 거래 여부를 점검하고, 조사 강도도 조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사모펀드(PE)가 특정 사건을 이유로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는 것은 최하다.

금융감독원은 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기업회생 절차를 계획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사 범위에는 ▲홈

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도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투자자 LP 및 국민연금공단 등 이익 침해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회생절차 진행 경과 및 민원 동향을 고려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 강도도 조절할 계획이다.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사전에 계획하고 기업어

음(CP) 및 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한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법적 책임 여부까지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별도 팀을 꾸려 MBK 검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기존 금융검사 조사국, 금융안정지원국 및 관련 부서를 포함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소한 상반기까지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합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 부원장이 총괄을 맡고, 관련 현안은 증권 담당 부원장 산하로 이관된다.

다만, 이 원장은 검사 과정과 관련된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어 지금 단계에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특히 MBK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객관적인 사실 점검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융사 PF 연체율 3.4%… 전년비 0.72%p ↑

정부,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 중소 금융회사 연체 21.71% 기록 사업장 부실화 등 연체액 증가 영향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은 3.4%로, 전 분기(3.51%) 보다 낮아졌지만 1년 전(2.70%)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여전·상호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사업장 부실로 연체액이 늘며 21.71%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정리·재구조화를 촉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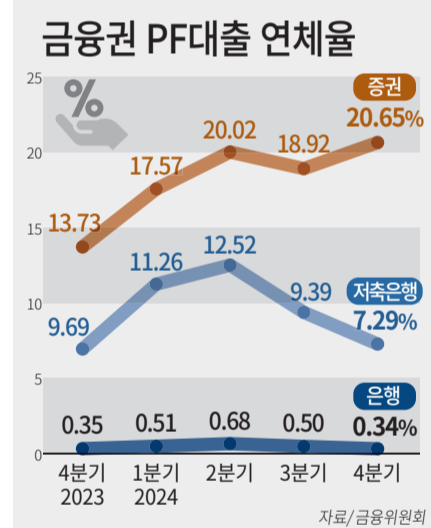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7000억원 증가했다. PF 신규취급액은 지난해 ▲1분기 9조원 ▲2분기 15조1000억원 ▲3분기 16조4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금융권 PF대출(128조1000억원) 연체율은 3.42% 수준으로 전 분기 대비 0.08%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1년 전(2.70%)과 비교하면 0.72%p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저축·여전·상호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1.71%에 달한다.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사업성 평가 결과 지난해 말 PF 익스포저(PF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는 203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조1000억원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해 28조8000억원 줄었다.

다만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19조2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9.5%를 차지했다. 1년 전(4%)과 비교해 확대됐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은 정리·재구조화를 보다 촉진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플랫폼 매물정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에는 맞춤형 매각설명회



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 사업이 자기자본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사업자보증보증료를 할인한다. ▲자기자본비율이 10% 초과 15%이하인 사업장은 5% ▲15% 초과 20% 이하는 10% ▲20% 초과는 20% 할인한다.

금융권은 지금까지 회의를 통해 마련한 책임증공 개선방안을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확대된 PF 대출 계약의 연장 사유가 담겼다. 원칙적으로 표준도급계약서 연장 사유를 준용하되, PF 대출 특성을 반영하고 건설·금융권 간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유를 제외했다.

천재지변, 내란, 전쟁으로 극히 제한되던 연장 사유는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을 연장 사유에 포함하고 총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배상범위는 도과 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채무인수한다. 지금까지는 하루라도 채무인수를 도과하면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다. /나유리 기자 yu115@

“中 전략, 콘텐츠 로컬업체와 협업 강화”

>> 1면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서 계속

MX부문은 중국 시장에 특화된 제품으로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중국 시장은 다른 국가 대비 모바일 관련 서비스 및 콘텐츠 발전이 굉장히 빠른 시장이라”며 “삼성전자 중국 전략은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하고, 중국 내 콘텐츠 로컬업체와 전략

적 협업을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 여러 AI 업체와 협의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중희 부회장은 “혼신의 힘을 다해 올해 근원경쟁력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환경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을 창출해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회사의 경영철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경영이념을 위기 돌파 방안으로 고려한 셈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노 사장을 비롯해 한중희 DX부부장(부회장), 전영현 DS부부장(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 10명이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주주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주중에선 재무상태표 승인, 사외·사내이사 선임 등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새 이사회 구성은 ‘반도체 전문가’를 수혈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제 변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다주택자 등 대출 문턱 높아진다... HUG 보증비율 조기 하향

<100%→90%>

‘토히제’ 반복... 갭투자 차단
단기 거래위축·가격조정 효과
풍선효과 유발 등 부작용 우려
“비규제지역 가격 상승 예상”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35일 만에 반복했다. 말을 뒤집은 것은 물론 이전보다 지정 구역은 광범위하게 확대됐으며, 개발호재나 재건축 등 특정사유 없이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전문가들은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유발하고, 실수요자의 서울 내 집마련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 광범위한 토히제 지정... 추가도 검토 '초강수'

정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초강수를 둔 것은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거래를 하려면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주간 상승률은 작년에는 포함(0.00%)에서 0.20% 상승까지 15주 가량 걸렸지만 최근에는 7주 만에 도달할 만큼 상승세가 가팔랐다. 강남3구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던 것이 2월 말부터는 서울 자치구 대부분으로 확산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관계기관은 추가적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가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박상우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뉴시스



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효성

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턴트 팀장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과 지속적인 공급 부족 등 부동산 시

장을 자극할 요소들이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 지역에서의 투자 제한이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유발하면서 강동·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직후, 7월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6월 대비 둔화됐다. 반면 인근 비규제 지역인 강남구 압구정동과 개포동,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은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이번 규제가 오는 24일 계약부터 적용되는 만큼 단기간 내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급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 ‘갭투자’ 막아라... 대출 규제도 강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점검을 강화한다.

선순위 전세(대출)가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택담보 대출을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를 평가·반영해 대출이 취급됐

는지 등을 살펴본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 제한과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도 점검토록 했다.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되었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당겨 시행한다. 기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정책대출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고,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사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금융위·서울시·국토부 일문일답

“부동산 급등, 뼈 아프게 생각... 변동성 확대시 추가 지정”

조기 변동성 진화... 투기 과열 차단 “상황에 따라 재지정·연장 여부 결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뼈 아프게 생각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6개월로 축소하고 상황에 따라 재지정·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에 다주택자, 갭투자자, 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투기 수요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출 차단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시행하

겠다”고 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서울시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일문일답.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강남3구에서 용산구까지 확대한 이유는.

“강남3구에서 매매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갭 투자를 비롯한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매매 거래 등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한 두 번의 금리 하락이 예정돼 있는 만큼 조기에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 과열 범위)가 더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지정할 수 있는 기회)에 오늘 수 있는 지역까지 확장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6개월로 잡았는지.

“6개월 정도 지정하고 지켜보면서 추후 재지정·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생기는 곳이 있다. 그런 지역들도 풍선효과로 가격 변동성이 생기면 그런 지역들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2월에 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는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급감하고, 가격도 안정돼 있는 상황이 지속되던 상황이었다. 여기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부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고 관리가 가능하다 판단해 해제하게 됐다. 해제할 때도 모든 아파트를 푼 것이 아니고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잠실 5단지, 은마아파트 등 30년 이상이 오래해서 재건축이 지정된 단지들은 존치하고, 기축 아파트 중 불과 10~20년 안쪽에 재건축 이슈

가 없는 아파트에 한정에서 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이 폭발할 것을 당혹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2월 해제 이후 어떤 과정을 통해 이같은 발표를 하게 됐는지 상세히 설명해 달라.

“차관급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토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경제부처와 수시로 소통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금리 변동이나 대출 규제 등 금융정책도 마련해야 급격한 변동성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 판단했다.”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4일로 시차를 둔 이유는.

“현행 부동산 거래법상 고시를 하게 되면 효력은 5일 후에 발생 되도록 규정돼 있다. 법령이 통과해 오늘 고시

가 되고, 그 효력이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24일이라고 발표했다.”

—계약일 기준으로 23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넣은 분들은 가능한 건가.

“그렇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 폭을 3.8% 이내로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상황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경험에 기초해 월별·분기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출 관리 체계를 갖춘 상태다. 서울시의 조치가 가계부채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다만 밀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융권에는 다주택자, 갭투자자, 외지인 등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경우 차단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에도 이런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둔화시켰다. 이번에도 유사한 조치를 해 나가고, 만약 이 부분이 잘 안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유리 기자 yul115@

3대 '게임체인저'에 3.4조 투입... 유니콘 벤처지원 16조 책정

‘국가 AI컴퓨팅 센터’ 상반기 착수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 수립
양자전략위원회 5개년 종합 계획
‘한국판 디즈니’ 육성 본격 추진 발표
K-관광 휴양벨트 9개소 신규 구축

정부가 신산업 후발주자의 추격을 막겠다며 3개 부문의 이른바 ‘게임체인저’(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자)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공언했다.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양자 부문이다. 올해 이 3곳 관련 투자를 지난해 대비 25%가량 늘린 3조 원대로 책정했다. 또 75조 원대의 정책금융 공급을 예고했는데 그중 유니콘(기업가치 최소 10억 달러) 벤처기업 육성에 20% 이상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4’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방문객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뉴시스

표했다.

기술패권 및 경제안보의 핵심은 ▲AI ▲첨단바이오 ▲양자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들 3대 게임체인저 투자에 올해 3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2조7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신산업 자금줄을 맡게 될 정책금융

규모는 포함 75조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절반인 37조2000억 원, 콘텐츠·항공우주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에 21조5000억 원을 할당했다. 그 외 유니콘 벤처기업 등의 육성에도 16조7000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신성장 4.0 인프라 지원 방향으로 정

부는 ‘FOCUS(포커스)+’를 내세웠다. 선도형 R&D 체계 구축(F), 개방형 금융지원체계 구축(O), 협업 통한 시너지 창출(C), 핵심전문인력 양성(U), 규제 혁신(S), 국민체감제고(+)이다.

프로젝트별 추진방안에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도 수립한다. 또 지난해 기준 1004개 수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연계 의료기관은 올해 1263개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양자전략위원회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주력전략산업 가운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추진에 나선다. 이차전지의 경우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개정 등으로 지원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무기발광(LED) 핵심기술 확보 및 주요 소부장 자립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K-관광 휴양벨트’를 올해 신규로 9개 구축하고 미식벨트 3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K-컬처 연계 관광 상품화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의 디즈니’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신기술 미래분야 개척에도 나선다. 도심항공교통(UAM) 도심항공 지역 특화모델을 2개 지역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도심 실증에 착수한다.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실증 개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꾀한다.

정부는 올해 11월 중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 있다며 달 탐사 2단계 사업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하고 차세대 원자로(SMR) 기술개발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개발도 지속한다. 수소 생산시설 구축 등 신에너지 생태계 조성도 도모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자율주행택시 주간에도 달린다... 소상공인 폐업 신고 간소화

정부, 11개 규제 혁신 과제 발표
운행 시간 확대 및 대수 증가
바이오·수소 등 기술규제 완화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평일 심야 시간대 운행되는 자율주행택시 시범 운행 시간이 낮 시간대로 확대되고 운행 대수도 늘어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업종에 한정돼 운영됐던 폐업 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야를 중심으로 6대 맞춤형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야를 중심으로 6대 맞춤형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강남시범운행 지구 16.5㎢ 구간에서 지난해 9월부터 평일 오후 11시~오전 5시까지 심야 시간에 진행되는 자율주행택시 기술 실증을 위한 시범 운행은 오는 7월 자율주행택시 운행사업자 신규 선정시 운영 시간을 주간 시간대로 확대해 허가하고, 운행 대수도 늘려 추진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서 정량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을 반영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바이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조건도 완화하기로 하고,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자본 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기업은 사업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위치정보 사업의

4개 유형을 폐지하고 ‘위치정보사업자’로 단일화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건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개선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5개 규제 개선 과제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면 통합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한다. 현재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은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동물병원, 숙박업, 세탁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한 곳에서만 폐업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경험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서비

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MAS) 제도 자료 제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을 1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공장 설립시 부담금 면제가 가능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공장등록신청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최성영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장은 “지난해 말 규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민·기업 체감형 규제 개선 결과와 ‘중소기업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구축해 접수한 건의 과제를 포함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트럼프 철강 25% 관세에... ‘제3국 우회 덤핑’ 차단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 수립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정부가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수입되는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철강재 수입신고시 기존 원산지증명서보다 강화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알루

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행위를 차단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우회덤핑방지 제도는 기존 덤핑조사제도를 강화한 것이지만,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한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규정해 ‘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 덤핑도 포함되도록 ‘관세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 보다 다양한 유형의 우

회덤핑 행위에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기 위해 기업이 생산시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를 수입신고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트럼프 정부가 내달 2일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시, 우회 수출 여부를 고려하기로 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조달하는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개편안 입법예고

기재부, 오는 5월 국회 제출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률개정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률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사망자의 전체 재산이 아닌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게 방안의 골자다. 정부는 2028년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되도록 세부사항 등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인적 공제를 상향하는 내

용도 담겼다. 자녀 공제를 인당 5억 원으로 늘려 다자녀 가구 세부담 감경 규모를 확대한다. 또 배우자 공제 한도를 기존의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배우자와 자녀 등을 합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비과세하도록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했다.

나라 경제 규모가 커졌고 배우자 사망으로 살던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 등이 발생하는 만큼,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을 일정 부분 줄여 주자는 취지다. 문제는 국회 통과 여부다. 상속세가 사실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탓에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김연세 기자



빛바램수록 더 빛이 납니다

따뜻한 세상을 위해
함께해 온 97,894시간
해지고 바램수록 더 빛이 나는
이 봉사조끼처럼
2025년에도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아름다운동행

2024년 한 해, 임직원 봉사활동으로 97,894시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신한금융그룹**

野 “崔 직무유기, 몸조심하라”... 與 “불법테러 선동” 반발

李 “중요한 헌법상 의무 이행 안 해 직무대행 권한 남용 즉각 중단하길” 현재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 촉구도



이재명(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시간 심리를 이어가자,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 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22일이 지났음에도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최장시간 심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후 11일에 선고 기일을 고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9일째에 고지했다.

탄핵심판 심리가 장기화되자, 야권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정작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동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날(18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19일까지 지명하라고 압박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적으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를 지적하며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 구성을 3인(대통령 임명), 3인(국회 추천), 3인(대법원장 지명) 이렇게 임명하도록 돼 있

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다”며 “현재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모범,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내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엔 “현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시다”며 현재의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천명(천이재명)계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대표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을 대신해 대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내란의 과정이 지속되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과 협박이 지금 도를 넘고 있지 않나”라며 “더 이상 내란과 갈등, 불안이 지속되지 않게끔 이제는 현재가 결정할 때가 됐다”는 취지에서 국민들 다수의 의사를 대변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론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나가는 막말과 협박을 가했다”며 “도대체 거대 야당의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이 들었다. 명백히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대놓고 신변위협 협박을 한다면, 신변 보호 경호 인력이 필요한 건 이 대표가 아니라 최 권한대행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野, 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 본회의서 의결되더라도 **崔 대행 특검 임명 안 할 가능성** 與 법사위원, 항의 의미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9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 두 상설특검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찬성 11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검안에 항의하는 의미로 퇴장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도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하도록 돼 있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에 대해서는 마약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좌천됐다는 이유로 상설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 상설특검안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 의혹이 밝혀질까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 그러니 특검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안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고, 과잉 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두 상설특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처리된 ‘내란 상설특검안’과 관련해 특검

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 김 여사 상설특검·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두 상설특검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소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제1소위 퇴장 직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상설특검안을 ‘당론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두 특검법은)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지금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가지 않을 것 같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 상설특검을 해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묶어서 최 대행을 탄핵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오는 26일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에 여론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은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했다. /서예진 기자 syj@

“보험 청구권 신탁 규제완화·실손 청구 전산화 등 지원 요청”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간담회 업계 “법적·제도적 지원 절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보험업계와 만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 업계는 보험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와 실손보험 전산화의 의료계 참여 등을 국회가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현승 의원, 김재섭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선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사장,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월요일에 여러 금융·보험 산업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했다”며 “헬스케어, 반려동물에 관련한 보험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최근에 기후 문제가 있다보니 날씨 보험의 적용,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보험

업계도 여러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것 같다”고 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 산업은 국민 생활 안전과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 안전망의 한 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산업”이라며 “보험 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어려운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 청구권 신탁의 규제 완화, 실손 청구 전산화 2단계 추진 등 보험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편의 증진을 위한 여러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보험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선 업계 스스로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노력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며 “하지만 당면한 어려움을 기회로 전

화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보험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 또한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INTELLIGENTLY CONNECT

인공지능에서 연결지능으로

단순히 AI를 만드는 것을 넘어
AX로 고객의 일상에 혁신을 더하기 위해

유플러스는
사람과 기술을 지능적으로 연결하여
당신에게 딱 맞는 연결 경험을 제공합니다

소통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부터
비즈니스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까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유플러스만의 AX 혁신은 계속됩니다

**GROWTH LEADING
AX COMPANY**

LG U+

ixi

ixi-GEN



최대 8년 장병고객 확보... 은행, 나라사랑카드 유치戰 후끈

군인공제회, 3기 사업자 입찰 공고 4대 시중은행·기업은행 경쟁 돌입 2500억 규모 장병급여 확보 총력 높은금리에 다양한 제휴혜택 유리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업자로 선정된 은행들은 최대 8년간 국군 장병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어서다. 차기 나라사랑카드 사업은 3개 은행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4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 14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을 위한 ‘나라사랑카드 발급 및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을 입찰 공고했다.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13일에는 금융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 규격도 공고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 입찰이 이달 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라사랑카드’는 병역대상자의 병



군 장병들의 급여가 지급되는 ‘나라사랑카드’ 운영 은행에 관심이 쏠린다.

/뉴시스

역판정검사 시 발급되는 카드다. 전자통장, 현금카드, 전자병역증 등 기능이 포함된다. 군 급여뿐만 아니라 각종 훈련비 및 여비가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되며, 군 내에서 병사의 신분증 역할도 겸한다.

사업자 선정이 임박하면서, 은행권에서는 나라사랑카드 사업 유치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유치 시 사회 진출을 앞둔 20대 고객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고, 장병 급여를 통해 대규모의 저원가성 예금도

확보할 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24만명이 입대한다. 올해 인상된 군 급여액인 월 75만~150만원을 고려하면, 매년 2500억 원에 달하는 급여가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군인공제회가 최근 공개한 사전규격에 따르면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은 3개 금융기관을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2기 사업보다 1곳 늘었다. 사업 기한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5년

이며,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3년의 사업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자 선정 기준은 지난 2기 사업과 유사하다. 카드 발급·재발급 방안, 서비스 등 사업 능력에 높은 배점이 책정됐다. 특히 제휴·금융서비스에는 가장 큰 25점이 배정됐다. 높은 금리 경쟁력과 더불어 다양한 제휴 혜택을 제공할수록 사업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방부와 병무청은 ‘나라사랑카드를 통한 행정업무 간소화’도 평가요소로 제시했다. 기존에 전자인증, 전자고시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를 운영 중인 대형은행들에 유리한 조건이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적극적이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적고, 은행권의 신규고객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토스·케이), i뱅크 등은 아직까지 입찰 참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 중 대다수가 군인 출신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만큼, 4대 은행은 최근

채용에서 군 장교 전역자 전형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군심(軍心) 잡기에 나섰다. 또한 대다수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군 장교·장병 전용 상품의 금리는 오히려 올랐다.

나라사랑카드 2기 사업자였던 IBK기업은행도 수성전에 나섰다. 병역이행자의 97%가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금리를 은행권 최고 수준인 연 8%까지 인상했고, 모바일 앱을 통해 군 장병의 자산 관리 관리하는 ‘IBK군인라운지’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군인공제회는 이달 말 입찰을 희망하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입찰 및 개찰에 나설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나라사랑카드 사업에는 기존 사업자 외에도 여러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며 “최근 은행권의 고객 유치 경쟁이 활발해진 만큼, 나라사랑카드 사업은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똑똑하고 따뜻한 이미지... 보험사, ‘우먼파워’ 마케팅

업계, 친근한 여성스타 기용 확대 女 소비층 증가에 신뢰 확보 전략

보험업계에서 여성 광고모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대중적 호감도가 높은 여성 모델이 보험사의 안정적이고 친절한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광고시장은 여성 스타를 앞세운 전략이 두드러진다. 기존에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여성 모델로 꾸준히 주목받아온 데 이어 한화손해보험과 악사손해보험도 지난해부터 여성 모델을 기용해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예능과 드라마를 오가며 폭넓은 팬층을 보유한 배우 윤아를 앞세워 브랜드 이미지를 쌓고 있다. 배우 윤아는 지난 2018년부터 DB손해보험의 대표 모델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당시 DB손해보험은 “뒤편지 잘하는 예쁘고 씩씩한 좋은 이미지를 남긴 윤아를 새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은 ‘국민 피겨스타’ 김연아를 광고모델로 기용해 이미지를 넘어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DB손해보험 윤아, KB손해보험 김연아, 악사손해보험 김혜수, 한화손해보험 김지원.

/각사

‘국민의 평생 희망 파트너’로서의 상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김연아는 지난 2006년부터 KB금융그룹의 후원을 받으며 인연을 이어왔다. 지난 2007년 1월 KB국민은행의 기업 이미지 광고에 첫 등장하면서 지금까지도 KB금융그룹의 모델이다.

특히 김연아는 지난 2015년 KB손해보험 출범부터 함께한 첫 광고모델이다. 김연아는 작년 ‘만기 오면 연아의 KB다이렉트’ 편 광고에도 출연하면서 명

실공히 KB손해보험의 대표모델로 우뚝 섰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배우 김지원을 전속 모델로 선정해 여성 특화 보험사 이미지의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김지원 특유의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는 한화손보의 여성을 위한 마케팅 방향과 어우러진다는 평가다.

한화손보는 “드라마 속에서 다양한 여성상을 소화해 온 김지원의 다재다능하고 도전적인 이미지가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악사손해보험도 지난해부터 배우 김혜수와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악사손해보험은 지난해 4월 첫 광고 캠페인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김혜수와 손잡고 신규 캠페인을 선보여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했다.

악사손해보험은 “김혜수가 가진 특유의 똑부러지면서 이지적이고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가 글로벌 보험 그룹으로서 전문성을 갖춰온 AXA손해보험의 아이덴티티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보험 광고에서 여성 모델의 영향력이 커진 요인은 보험 시장 주요 소비층 변

화와 브랜드 신뢰도 확보 전략이 꼽힌다. 최근 보험 상품은 건강, 간병, 자녀출산·육아 등 여성과 밀접한 내용을 포함해 가입 결정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여성 고객 역시 증가하면서 향후 보험업계 주요 고객층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여성 스타들은 섬세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광고에서 신뢰와 친근감을 동시에 전할 수 있다. 보험사들이 강조하고 싶은 이미지와 맞물려 여성 모델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보험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유명 스타에게만 기대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광고 모델의 이미지만만 아니라 보험 본연의 상품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보험사만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명 스타를 광고 모델로 발탁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큰 편”이라며 “각 보험사만의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롯데손보 생성형 AI 활용 주도 AI 개발 플랫폼 구축

롯데손해보험은 기존 인공지능(AI) 서비스 고도화와 생성형 AI 개발 기반 확보를 위한 ‘AI 개발 운영 플랫폼’을 구축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AI 개발 운영 플랫폼은 롯데손해보험이 기존 개발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및 심층학습(Deep Learning) 기반 서비스의 데이터 분석 환경을 혁신적으로 고도화해 AI 기술의 실질적인 도입과 활용을 지원한다.

해당 인공지능 플랫폼은 금융사 내부 환경에 맞춰 안전하게 운용한다. 향후 AI를 다양한 비즈니스 업무와 접목시킬 수 있게 하는 유연한 개발 환경도 조성했다.

금융권 최초의 첨단 기능도 탑재했다. 주석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코드를 만들어주는 ‘온프레미스 코드 어시스턴트’로 개발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향후 현업에서의 적용 가능성도 확대했다. 데이터 분석과 모델 개발 과정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텍스트만을 입력받아 처리하는 LLM(Large Language Model) 뿐만 아니라 텍스트와 이미지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멀티 모달 모델’(Multimodal Model)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됐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주행거리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계기판 이미지 모델로만 처리해 왔다.

이번 멀티 모달을 활용해 소량의 학습 데이터만으로 보다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에서 정확하게 주행거리 정보를 인식해 자동차보험의 혁신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지식산업센터도 ‘숲세권’이 대세

아파트처럼 지식산업센터도 공원에서 가깝거나 공원조망이 가능한 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원조망이 가능한 층 또는 향(向)은 수요자 선호가 높아 입주 후에 자산가치도 올라갈 수 있어서다. 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산책하기 좋은 공원 인근 지식산업센터는 입주회사의 직원채용에도 유리한 여건으로 알려져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급되는 공원 근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차별화된 옥상정원을 조성하는 등 주변 환경에 걸맞는 구성으로 설계되는 단지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에 분양 중인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의 경우 영흥숲공원 영덕레스피아 샘골근린공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광고호수공

원은 1.5km 거리여서 산책도 가능하다. 단지는 지하 6층, 지상 최고 33층 5개동에 연면적은 서울 롯데월드타워보다 큰 약 35만여㎡로 조성되며 저층 건물 2개동 옥상은 공원으로 꾸며진다.

천안 성성동에 들어선 ‘자이타워’는 성성호수공원 노태산근린공원에서 가깝고 단지 내에 옥상정원 필로티공원 등으로 조성됐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12층에 제조형, 업무형, 섹션오피스로 구성돼 있으며 연면적은 13만6000여㎡로 천안에서 최대 규모로 꼽힌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분양 중인 ‘마곡보타닉 게이트’는 여의도 2배 규모인 서울식물원에 인접해 있다.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10층에 연면적 3만7천여㎡ 규모로 조성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원 조망 가능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회사는 고객을 초대하는 업무미팅에 유리한 여건으로 꼽는다”며 “단지 주변에 공원이 가까우면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하이닉스, 인텔 낸드 인수 마무리 단계... eSSD 시장 정조준

반도체 설계·제조 IP 확보
美·中 등 고객사 관계 강화
업계 “글로벌 경쟁력 향상 기대”



SK하이닉스 이전 행복문.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이르면 이달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사업 인수를 최종 마무리한다. 2021년 1단계 인수를 완료한 지 약 3년 만이다.

1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오는 31일까지 인텔에 남은 잔금 22억3500만달러(약 3조2320억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인수가 완료되면 SK하이닉스는 인텔이 보유한 ▲중국 다롄 공장 운영권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관련 지식재산권(IP) ▲연구개발(R&D) 인력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SK하이닉스는 2020년 10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총 90억달러(약 12조원)에 인수하기로 발표했다. 2021년 1단계로 1차 잔금 70억달러(약 9조3천억원)를 지급하고 핵심 사업 운영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각국 규제 당국의 승인 및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인수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인수로 SK하이닉스는 기업용 SSD(eSSD)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SSD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저장 매체로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 장치로, 빠른 속도와 높은 내구성

으로 데이터센터 및 기업용 스토리지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기업용 SSD 시장은 eSSD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기존 소비자용 SSD에서 강점을 보였던 SK하이닉스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서버·데이터센터용 고성능 eSSD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을 통해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주요 고객사와의 관계도 강화할 전망이다. 솔리다임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주요 데이터센터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

다. 지난해 매출 8조848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93.9% 성장해 향후 eSSD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입지 확대에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이번 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낸드플래시 시장은 삼성전자와 키옥시아, 웨스턴디지털 등이 경쟁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완전히 흡수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 완료 후에도 기술 통합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인텔은 기존 ‘플로팅게이트’ 공정을 사용해 왔고, S

세계최초 ‘HBM4’ 12단 샘플 출하

“AI 메모리 시장 입지 굳건히”

SK하이닉스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시장에 내놨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용 초고성능 D램 신제품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주요 고객사들에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이날 “HBM 시장을 이끌어온 기술 경쟁력과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HBM4 12단 샘플을 출하해 고객사들과 인증 절차를 시작한 것”이라며 “양산 준비 또한 하반기 내로 마무리해,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주요 고

객사에 샘플로 제공한 HBM4 12단 제품은 AI 메모리가 갖춰야 할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를 갖췄다. 12단 기준으로 용량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HBM4 12단 제품은 처음으로 초당 2TB(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역폭을 구현했다. 이는 FHD(Full-HD)급 영화(5GB = 5기가바이트) 400편 이상 분량의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하는 수준으로, 전세대(HBM3E) 대비 60% 이상 빨라졌다.

또한 어드밴스드(Advanced) MR-MUF 공정을 적용해 HBM 12단 기준 최고 용량인 36GB를 구현했다. 이 공정을 통해 칩의 휨 현상을 제어하고, 방열 성능도 높여 제품의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하이닉스는 ‘전하트랩 플래시(CTF)’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플로팅게이트 방식은 안정성이 높지만, 200단 이상 고적층 구현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두 공정의 기본

적인 메모리셀 구조가 달라 생산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두 방식을 모두 운영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배터리업계, 건설장비 제조사 협력 강화... 글로벌 시장 공략

LG엔솔 두산밥캣 업무협약 체결
삼성SDI 원통형배터리 공급 확대

배터리업계가 건설장비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한다. 그동안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장비용 배터리를 공급해왔으나 건설장비 업체와 협력을 계기로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국내 건설장비 시장에는 이미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전기 지게차와 중장비용 배터리를 앞세워 빠르게 진출한 만큼 향후 시장 경쟁 구도가 더욱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두산밥캣과 ‘소형 건설장비 배터리 팩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

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두산밥캣 건설장비 대표 모델의 전동화 프로젝트에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했다. 또 향후 다양한 제품에 확산 적용이 가능한 건설장비용 표준화 배터리팩을 공동 개발하고 북미 등 주요 시장 공략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키드로더, 굴착기 등 건설장비 외 트랙터와 같은 농업·조경용 장비 제품에도 전동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 논의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 소형전지사업부장 오유성 전무는 “글로벌 건설장비 업체 두산밥캣과 협력해 전동화 기술 개발 및 사업 추진을 하게 돼 기대가

크다”라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전동화 시장 선도를 위해 앞으로도 최초, 최고의 도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부수는 ‘원통형 배터리’

현재 중국 배터리 기업들도 건설장비 판매부터 정비에 강점을 발휘하며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이자 배터리 업체인 중국 BYD는 지난 2016년 국내 시장에 리튬배터리 지게차를 처음 도입한 이후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 코오롱글로벌은 BYD의 전기 지게차를 국내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다. BYD 전기지게차에 사용되는 LFP(리튬·인산·철)배터리는 미국 보험협

회시험소(UL) 인증을 받아 안전성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EVE에너지 또한 지난 3월 5일에 개최된 ‘인터배터리 2025’에 처음으로 참가하며 한국의 건설기계 제조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건설분야의 기술 경쟁에서는 원통형 배터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초고출력 장비가 요구되기에 고전압·고밀도·장수명 특성을 가진 원통형 배터리가 강점을 발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건설장비 특성상 사용 환경이 눈, 비 혹은 폭염 등에 그대로 노출되는 실외인 경우가 많고, 작업 중

류에 따라 크고 작은 출력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 안정성이 필수적이다. 큰 온도차, 먼지, 긴 제품 운영 시간 등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구동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삼성SDI도 원통형 배터리를 활용한 건설장비용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볼보건설기계는 국내 법인인 볼보 그룹코리아를 통해 경남 창원에 건설기계용 배터리팩 공장을 건설했으며 지난 2024년 4월 완공됐다. 이곳에서는 삼성SDI의 원통형 배터리 셀과 모듈이 공급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통형 배터리는 오랫동안 국내에서 생산돼 온 만큼 기술적 신뢰성이 높고 밀도나 수명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특성이 내구성 면에서 차별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모비스, 홀로그래픽 HUD 등 모빌리티 신기술 공개

서울모빌리티쇼 참가... ‘모비온’ 전시

현대모비스가 차량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공개한다.

현대모비스는 내달 3일부터 13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해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HUD) 등 모빌리티 신기술 8종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홀로그래픽 HUD 기술은 차량 전면

유리창에 주행 정보, 내비게이션, 음악, 동영상 등 콘텐츠를 선명하게 구현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현대모비스가 독일 광학기업 자이스와 공동 개발 중이다.

세계적으로 양산 사례가 없는 신기술로 국내에서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2025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 현장 관람객들의 호응이 컸다고 현대모비스는 전했다.

차량이 마치 게처럼 옆으로 이동하는 크랩 주행과 360도 회전하는 특수 주행이 가능한 ‘모비온’ 차량도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전시된다. 모비온은 현대모비스의 차세대 전기차 구동 기술인 ‘e-코너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기술이 탑재된 실증차로 관람객들이 직접 탑승해 볼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 해설가들 둔 ‘엠테크(M.Tech) 갤러리관’을 운영해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체험한 모빌리티 기술들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



현대모비스는 이번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투명 디스플레이’(왼쪽), 특수주행이 가능한 ‘모비온’ 등을 전시하고 관람객에게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

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니어 공학 교실’을 운영한다. 참가 학생들은 빛의 투영과 반사원

리를 이용한 3D 홀로그램과 태양전지 전기를 통해 작동하는 미니카를 제작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철거 등 폐업비용 2000만원 훌쩍” 소상공인, 빚 남기고 문 닫는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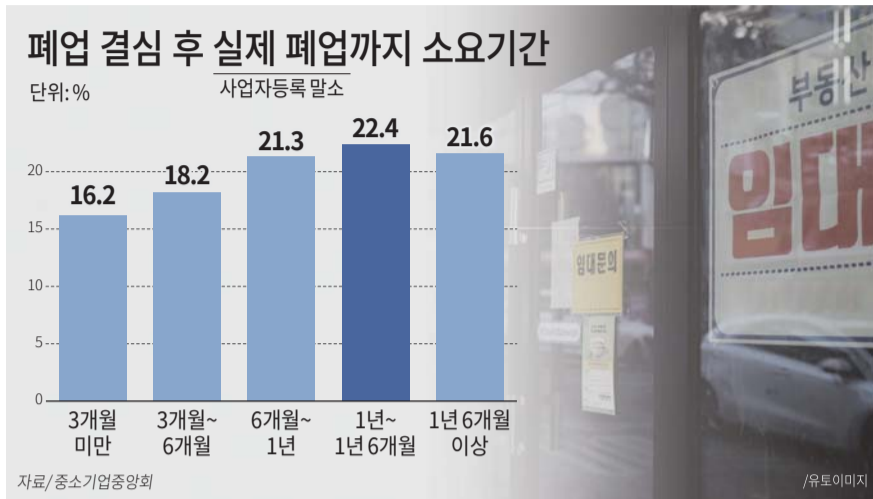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폐업 실태조사 결과
폐업시 평균 2188만원 소요
실제 폐업까지 ‘1년 이상’ 44%
폐업때 부채 평균 1억236만원

폐업도 돈이 없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철거, 원상복구 등으로 들어가는 폐업비용은 평균 20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장사가 안돼 폐업을 결심한 후 사업자등록 말소 등 실제 폐업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1년4개월 정도가 걸렸다. 10곳 중 4곳은 창업 후 3년도 못버티고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직장에 다니다 생계를 위해 창업한 가게를 평균 1억원 정도의 빚만 남기고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1년 이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19일 내놓은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위해 든 비용은 평균 2188만원으로 집계됐다. 돈은 주로 ‘500만원 미만’의 철거 비용(75%)과 원상복구 비용(80.9%), 종업원 퇴직금(79.4%) 등으로 나갔다. 폐업비용을 ‘자체 자금’으로 마련했다는 답변(복수응답)이 63%로 가장 많았지만 ‘친인척 등 지인 차입’(38.3%), ‘금융권(카드) 대출’(35.5%) 등을 통해 융통했다는 답도 적지 않았다.

폐업하겠다고 마음 먹은 이후 실제 폐업까지 ‘1년 이상’ 걸렸다는 답변도



전체의 44%에 달했다. ‘폐업 이후 대안이 없어서’(51%), ‘새로운 인수를 찾기 위해’(46.1%),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37%) 등이 대표적인 이유(복수응답)였다.

폐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생계유지 방안 마련(31.1%) ▲권리금 회수·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이 주된 애로였다. 창업 후 폐업까지 영업한 기간은 ‘3년 미만’이 39.9%였다. 반면 10년 이상 버틴 곳은 22.3%에 그쳤다. 이외에 ‘3년 이상~5년 미만’(16.6%), ‘5년 이상~10년 미만’(21.2%)이라고 답했다. 창업하기 전 직업은 절반이 넘는 52.3%가 ‘직장 근무’였다. ‘사업체를 운영했다’는 답변도 32%였다. 창업 이유로는 ‘생계 유지’가 65.4%로 가장 많았다.

폐업 사유(복수응답)로는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86.7%)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 ▲임대기간 만료, 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 등으로 조사됐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배달앱·숙박업 등 온라인플랫폼사의 수수료·광고비 부담(35.6%)이 평균(16.3%) 대비 높게 나타나 온라인플랫폼의 비용 부담에 큰 애로를 있는 모습이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부채액은 평균 1억236만원이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재교육 강화와 전직장려금 확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면 소상공인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올해 전장, AI·서버 제품 매출 2조 목표”

장덕현 삼성전자 사장
제52기 삼성전기 정기 주주총회



집했다. 장 사장은 “2025년은 ADAS가 전장용 시장의 성장 동력이며, AI는 CSP 등 빅테크기업들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삼성전기의 MLCC, 패키지 기관, 실리콘 캐패시터 등 제품들은 AI용으로 공급을 확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기는 2025년에 미래 성장사업인 전장 및 인공지능(AI)·서버 제품의 매출 2조원을 달성하겠다. 이를 위해 주력 사업 부문별 고부가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고객 다변화를 추진해 지속 성장 가능한 체계를 만들겠다.”

장덕현 삼성전자 사장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52기 삼성전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AI·서버·전장용 등 고성장·고수의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장 사장은 “2024년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경기 불안정 등으로 인해 저성장이 경제의 뉴노멀이 된 어려운 경영환경이었다”며 “삼성전기는 고부가 제품 중심 사업구조 개편, AI·서버, 전장 등 사업 확대, 내부효율 개선 통한 사업 체질 강화 등을 통해 차사 이래 매출 1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과거 제조, 생산에 집중했지만 최근 혁신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어 삼성전기에도 여러 기회 요인이 있다”며 “삼성전기는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시장 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다

삼성전기는 신사업인 미래(Mi-RAE) 프로젝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소형 전고체 전지 ▲실리콘 캐피터 ▲전장용 하이브리드 렌즈 등을 개발 중이다. 이 중 글라스 기관은 올해 세종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을 구축, 시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장 사장은 “AI, 서버 등 기존 고객들과 협력해 코어 중심의 글라스 기관과 글라스 인터포저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중에서는 보고 사항과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의 승인 등 부의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사 선임의 경우 사외이사는 이윤정 이사와 사내이사로는 장덕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김성진 경영지원실장 부사장을 재선 임했다.

/차현정 기자

SK온, 닛산에 15조 규모 배터리 공급

일본 완성차 첫 고객사

생산될 예정이다.

SK온이 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에 약 15조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 SK온이 일본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한 첫 사례다.

SK온은 2028년부터 2033년까지 총 99.4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를 닛산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중형급 전기차 약 100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물량이다.

SK온이 공급하는 배터리는 고성능 하이니켈 파우더셀로, 북미 지역에서

이번 계약 물량은 닛산이 미국 미시시피주 칸튼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인 북미 시장용 차세대 전기차 4종에 탑재된다.

이석희 SK온 대표이사 사장은 “SK온의 우수한 배터리 기술력과 경쟁력이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핵심 시장인 북미에서의 생산 역량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전동화 파트너들의 성공적인 전기차(EV) 전환을 조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

“스타일링부터 위생까지” LG, ‘뉴 스타일러’ 선보

LG전자가 의류관리기 신제품 ‘2025 뉴 스타일러’의 판매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제품은 빌트인 고압 스티머를 더욱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스타일러 문 안쪽에 슬라이딩 스탠드 ‘스티머 스테이션’을 추가했다. 고압 스티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타일러 문 안쪽에 슬라이딩 스탠드를 추가하고, 고정형 옷걸이 홀더를 개선했다. 또 고압 스티머 예열 시간도 3분 30초에서 3분으로 단축시켜 사용성을 개선했다.

세균, 바이러스, 냄새 유발 물질 등 다양한 생활 속 오염원들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의류의 몸통뿐 아니라 팔 부분까지 탈탈 털어주는 다이내믹 무빙행어로 미세먼지를 99%까지 제거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듀얼히팅 트루스팀 기능으로 섬유 속 유해세균 10종과 바이러스 11종을 99.99% 살균해주며, 리넨, 실크, 가죽 등 까다로운 소재도 섬세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동 환기 시스템을 적용해 스타일링 코스 작동 완료 후 내부 세습 기능으로 관리된 의류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히터 없이 수분만 빼는 저온 세습 방식이 적용됐다.

/구남영 기자

車 산업 디지털 혁신 이끈다

LG ‘패스트 컴퍼니’ 혁신 기업 선정
SDV와 자동차업계 디지털 전환 촉진
웹OS 기반 차량용 콘텐츠 플랫폼 적용

LG전자가 미국 경제 전문지 ‘패스트 컴퍼니’가 발표한 자동차 부문 ‘2025년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1995년 미국 뉴욕에서 창간한 패스트 컴퍼니는 2008년부터 매년 경제·경영·기술·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친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58개 분야별 혁신 기업을 발표했으며, 자동차 부문에서는 LG전자를 포함한 10곳이 선정됐다.

패스트 컴퍼니는 LG전자의 전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VS사업본부의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oftware Defined Vehicle)’ 분야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LG전자는 부품 공급업체를 넘어 차량 전반의 혁신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는 목표 아래 미래준비 차원의 SDV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LG전자 VS사업본부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디지털 콕핏, 텔레매틱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비롯한 다양한 SDV 솔루션을 제

공하고 있다.

특히 SDV 전환을 위한 차별화된 솔루션인 ‘LG 알파웨어’를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소개해 큰 호응을 얻는 등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LG알파웨어는 고화질·고음질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는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플레이웨어, AR/MR, AI 기술 등으로 운전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몰입감 있는 차량 내 경험을 제공하는 메타웨어, 기존 차량 OS(운영체제) 성능을 강화하거나 새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베이스웨어, 다양한 소프트웨어 통합부터 신규 기술검증, 배포 등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서 개발자를 돕는 오픈스워 등을 포함한다.

또 LG전자는 차량용 웹(web)OS 콘텐트 플랫폼(ACP)을 상용 전기차에 최초 적용하며 차량을 ‘바퀴 달린 생활 공간’으로 만드는 LG전자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현실화했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은 “차량에서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SDV 기술을 지속 개발해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 3724가구 브랜드 타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대우건설

2단지 전용면적 59·84㎡, 3단지 84㎡
45번 국도 상부 공원화 '차별화된 조경'

대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1단지 1681가구는 조기에 100% 계약을 마쳤으며, 후속 분양으로 총 3724가구의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완성된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2043가구 규모다. 2단지는 ▲전용면적 59㎡A 609가구 ▲59㎡B 318가구 ▲84㎡A 446가구 ▲84㎡B 409가구 ▲84㎡C 22가구 등 총 1804가구(지하 3층~지상 28층)다. 3단지는 ▲전용면적 84㎡A 135가구 ▲84㎡B 42가구 ▲84㎡C 62가구 총 239가구(지하 4층~지상 26층)로 공급된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는 용인시 처인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원삼면 일대에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며, 지난 2월 415만㎡ 부지에 1기 팹(Fab·반도체 공장)이 착공에 들어갔다. 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

을 투자해 팹 6기 등을 짓는 더 큰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 내년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은화삼지구를 관통하는 45번 국도의 상부 공원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상부공원 조성을 맡아 차별화된 조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상부공원화가 진행된다면 1~3단지를 분절 없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누릴 수 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용인 역북·고림지구 생활권을 공유해 이마트, CGV를 비롯해 용인중앙시장, 처인구청 등이 가깝다. 단지 바로 옆에 도보 통학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되어 있고, 동탄2신도시 내 학원가 이용도 가능하다. 은화삼지구 내 도서관과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경안천 수변공원과 은화삼CC도 인접했다.

한편,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신분당선 동천역 부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숨 고르던 분양시장 전국 마수걸이 단지

올해 초 숨고르기를 하던 분양시장이 3월을 맞아 생기를 찾고 있다. 장 침체가 맞물리며 지난해에 비해 분양 시장의 불이 다소 늦어지고 전국 각지에서 마수걸이 분양이 나서며 이 같은 분위기는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새 아파트 청약이 예정돼 있다. 입지는 물론 공원 조성, 편의시설 차별화로 수요자를 유인하고 있다. 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산 전문가는 "마수걸이 분양 단지의 경우 각 건설사들이 입지가 우수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각 건설사별로 새해 사업의 이 단지들을 주목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smn.com

유도엔지니어링

초·중·고 '학세권'에 처인성로 '사통팔달'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현대건설

84㎡ 주력, 중형·펜트하우스 포함
마트·병원·학원가 등 인프라 갖춰

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일대에서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를 내놓는다.

단지는 용인 남사(아곡)지구 7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82㎡, 총 660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196가구 ▲84㎡B 87가구 ▲84㎡C 111가구 ▲109㎡A 127가구 ▲109㎡B 80가구 ▲109㎡C 27가구 ▲132㎡A 26가구 ▲150㎡PA 1가구 ▲150㎡PB 3가구 ▲150㎡PC 1가구 ▲182㎡P 1가구 등이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를 주력으로 구성하고, 희소성 높은 중형 타입과 펜트하우스가 포함된 대형 타입까지 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는 공립초·인성



유치원과 남곡초, 한숲중, 처인초·중, 처인고 등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다. 남사도서관이 가까이 있고, 단지 바로 앞 상업시설 내 다수의 학원들도 입점해 있다. 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남사(아곡)지구 일대는 수도권 입에도 놓여온 특별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지 바로 앞 4차선 처인성로와 올해 1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구리~용인~안성 구간이 개통하면서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이 더 편리해졌다. 마트, 병원, 학원가 등 상업시설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과 실내 수영장인 스포츠파크와 라이브러파크(자연힐링 도서관), 포레스트파크(산책숲길), 피크닉파크, 에코파크(자연공원, 생태연못), 칠드런파크(어린이공원, 물놀이장), 한숲 예비뉴(의료시설, 학원, 카페, 식당 등 스트리트상권) 등 주변에 인프라가 풍부하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중앙광장 계획으로 개방감과 쾌적성을 확보했다. 세대 내부는 4베이 판상형과 타워형 등 다양한 평면 구성으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주거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대형 드레스룸과 현관·복도 팬트리, 파우더룸, 알파룸, 2세대 분할 공간설계(109㎡타입) 등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설계도 적용했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10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남사(아곡)지구 내 남사읍 한숲로45 한숲스퀘어 옐로우 128호에서 분양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도심권 혁신파크' 호기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 쌍용건설

최고 48층에 아파트·오피스텔 468가구
쇼핑·외식·문화 도보이용 '서면 생활권'

쌍용건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일원에 주거복합 단지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을 공급한다.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은 최고 48층 높이로 들어서며, 아파트 432가구(3개동)와 오피스텔 36실(1개동)을 합쳐 총 468가구 규모다. 평형별로는 ▲84㎡A 252가구 ▲84㎡B 90가구 ▲84㎡C 90가구로 구성됐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36실이다.

단지는 범천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사업(예정) 바로 옆에 들어선다. 범천철도차량정비단은 4차산업과 문화콘텐츠 등이 융합된 도심권 혁신파크로 바뀌며, 부산시는 일자리와 주거,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국내 대표 4차산업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 상태다.



부산지하철 2호선 부전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서면역(1·2호선)·금융센터·부산은행역과도 인접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범천역(2호선)도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동서고속도로 제2지선 진입도 기대된다. 서면 생활권에 속해 편의시설과 문화생활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인근에 '대장신도시' 개발... 여의도까지 20분

원종 휴먼빌 클라츠 일신건설

4개 동, 전용면적 46~59㎡, 255가구
'분양가상한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일신건설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원종 휴먼빌 클라츠'를 분양할 예정이다.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지하 2층~지상 15층 4개 동, 전용면적 46~59㎡, 총 255가구 규모다. 타입별 가구수는 ▲46㎡ 54가구 ▲47㎡ 40가구 ▲59㎡A 51가구 ▲59㎡B 68가구 ▲59㎡C 42가구다.

단지가 들어서는 원종지구는 대장신도시와 오정군부대 개발 사업지와 가깝다. 개발이 완료되면 일대는 총 2만6000여 가구, 계획 인구 5만8000여명 규모의 주거타운으로 거듭난다.



이와 함께 원종지구는 서울에서 약 650m 떨어져 여의도까지 20분대, 종로까지 30분대, 마곡까지는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인근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에서 버스로 1정거장이면 5호선 화곡역에 도착하고, 서해선 원종역 이용

시 지하철 1정거장이면 김포공항역에서 5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단지 바로 앞에 원일초가 위치해 있고, 반경 800m 내 덕산중, 원종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원종지구 내 조성될 예정인 생활 인프라는 물론 기존 오정구 생활권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까지 가깝게 누릴 수 있다.

단지는 공원(계획)과 연접해 있고, 약 5만㎡ 규모의 인조잔디 축구장을 갖춘 오정대공원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경기도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들어서는 데다 인근으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분양가상한제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고 밝혔다.

원종 휴먼빌 클라츠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마련될 예정이다.

주거·교육·생활 인프라

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 우미건설

2100세대 미니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
장안IC 통해 동해고속도로 이용 수월

우미건설은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 B-1블록에 '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를 공급할 예정이다.

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는 지하 2층~지상 25층, 총 4개 동에 전용면적 59~84㎡, 총 419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 A타입 118세대 ▲59㎡ B타입 48세대 ▲84㎡ A타입 253세대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안지구는 부산 가장 근 장안읍 일대에 조성되는 약 2100여 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계획인 도시 계획에 인프라가 조성되며, 5호선과 동해선 좌천역을 이용한 여의도까지 20분대, 종로까지 30분대, 마곡까지는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인근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에서 버스로 1정거장이면 5호선 화곡역에 도착하고, 서해선 원종역 이용

상 ‘기지개’ 지에 눈길

탄핵정국과 분양시
있지만 건설사들이
일 전망이다. 용인과
특화 설계와 교통
올해도 분양가 상
지도 선보인다. 부동
하고 상징성을 갖춘
포문을 여는 마수길
1@metroseoul.co.kr



재... 부암역 초역세권



부암역 초역세권에 자리
까지 한 정거장, 국제
까지도 3개 정거장 거리
이 좋다. KTX·동해선
도 이용할 수 있다. 가
통해서는 서면으로 한
가도로 이용 시 남해고
수월하다.
단지에서 쇼핑·외식·문
할 수 있고, 롯데백화점

과 롯데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도 근거리
에 자리한다. 서면역 일대에 밀집한 서면메디
컬스트리트, 온종합병원도 가깝다.
교육여건도 갖춰졌다. 반경 300m 내 부전
초가 있으며, 서면중과 동성고, 문현여고, 가
야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한다. 단지 맞은
편에 다채로운 영어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산글로벌빌리지, 부산 수확문화관이 운영
중이고, 서면에 밀접한 입시, 여학원 등 학원
가 이용도 편리하다.

... ‘더블 역세권’ 기대감



택지개발지구다. 체
따라 주거·교육·생활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향하면 센텀역, 오시리
의 이동이 가능하며,
정관선(1단계) 사업이
상으로 포함되면서 향
발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장안IC를 통해 동해고속도로(부산~
울산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해 부산 도심뿐
만 아니라 울산 등 인접 지역으로의 접근성
이 뛰어나다.
장안지구는 다수의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이다. 인근에는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장안 일반산업단지, 반룡 일
반산업단지, 정관 일반산업단지 등이 자리
하고 있다.
단지는 부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도보권에 위치해 편리한 쇼핑·여가 환경을 갖
췄다. 지난해 9월 2단계 리뉴얼을 완료한 부
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은 기존 3만3100
㎡(1만평)에서 5만1480㎡(1만5600평)으로 확
장하고, 입점 브랜드도 기존 170곳에서 270곳
으로 늘어났다. 단지 인근으로는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으며, 장안중학교와 부산장안고등
학교, 장안제일고등학교도 가깝다.

KTX로 청량리역 50분... 시세차익 노려볼 만

원주역 중흥S-클래스

중흥토건

24일 특공, 25일 1순위·26일 2순위 청약
2028년 서원주역에 복선전철 개통 예정

중흥토건은 오는 21일 ‘원주역 중흥S-클래스’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원주역 중흥S-클래스는 강원도 원주시 남 원주역세권 A-2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5개동, 전용 84㎡ 총 50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세부 주택형별로 ▲전용 84㎡A 379가구 ▲전용 84㎡B 129가구 등이다.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일이다. 정당계약은 다음달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실시한다.

원주역 중흥S-클래스는 분양가가 ▲전용 84㎡A 3억8300만~4억4800만원 ▲전용 84㎡B 3억



7100만~4억3700만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낮다.

단지는 KTX원주역이 근거리로 위치한 역세권 입지로 KTX 이용 시 서울 청량리역까지 약 50분 이내 도착 가능하다. 또 인근 서원주역에는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2028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주 중심 생활권으로 평가받는 무실동에 위치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이마트가 위치하며, 상업·업무용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

AK플라자,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과 함께 원주시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 공공기관도 가깝다. 또 단지 바로 옆에는 마재근린공원과 마장근린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도 마련돼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정 부지가 자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변에 삼육초·중·고교, 대성중·고 등 모든 학군이 위치하며, 무실동 일대에 조성된 학원가를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세대당 1.64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계획돼 있다. 휘트니스센터와 GX룸, 실내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

원주역 중흥S-클래스는 만 19세 이상 강원도 거주자라면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하며, 입주는 오는 2028년 6월 예정이다.

7호선 산곡역까지 150m ‘초역세권’ 초품아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효성중공업·진흥기업

45층에 2475가구, 일반분양 1248가구
단지 북쪽에 장수산·원적산공원 위치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1동 일대(부평 산곡 재개발 정비사업)에 들어서는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을 선보인다.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은 지상 최고 45층, 총 2475가구로 1248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평형별로는 ▲39㎡A 177가구 ▲39㎡B 35가구 ▲59㎡A 318가구 ▲59㎡B 387가구 ▲74㎡A 86가구 ▲74㎡B 119가구 ▲84㎡A 84가구 ▲84㎡B 68가구 ▲84㎡C 88가구 ▲84㎡D 41가구 ▲96㎡5가구 등이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로 선보였다.

단지는 7호선 산곡역이 약 150m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에 자리했다. 7호선 이용 시 가산디지털단지까지 30분대, 강남까지



도 1시간 내에 갈 수 있다. 산곡역에서 GTX-B(예정) 개통이 예정된 부평역(수도권1호선·인천1호선)까지도 약 10분이면 닿을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부평IC)를 통해 차량으로 서울 접근성도 수월하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중동IC) 이용 시 수도권 곳곳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는 산곡초와 산곡초병설유치원을 품고 있으며, 산곡중과 청천중, 세일고, 인천외고, 명신여고 등으로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맞은편에는 롯데마트가 위치했으며, 단지 안에 대규모 상업시설도 들어설 예

정이다.

단지 북측으로 장수산과 원적산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인천 둘레길 코스 16곳 중 4코스인 원적산 둘레길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곡6구역과 한양아파트2단지, 산곡3구역 등 곳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3보급단과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도 공원과 녹지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단지는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면적대로 구성했다. 전용면적 39㎡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선호도가 기대되며, 84㎡는 타입에 따라 4베이, 알파룸, 3면 발코니 구조 등을 선보여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전용면적 96㎡는 4베이 구조에 알파룸, 드레스룸 등 보다 넓은 넉넉한 실내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피트니스와 GX룸,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 작은 도서관, 키즈카페, 소셜키친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선보인다.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견본주택은 단지 부지인 인천 부평구 산곡1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최고 49층에 교통·입지도 ‘굿’... GTX-B 예정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두산건설

3개동에 아파트 548세대, 상업시설 구성
경춘선 평내호평역까지 걸어서 2분 거리

두산건설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에 들어서는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규모로 아파트 548세대와 상업시설(지상1~4층)로 구성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4㎡, 84㎡, 펜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는 호평택지지구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해 교통 환경과 입지조건이 좋다. 경춘선 평내호평역까지 걸어서 2분 거리의 초역세권 단지다. 수석호평간 도시고속도로 평내IC가 가까워 잠실역



까지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고, 신경춘로가 인접해 서울 동북권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2030년 GTX-B노선(예정)이 개통되면 서울

역까지 1시간 이상 걸리던 출퇴근 시간이 20분 이내로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사업지 북측으로 이마트가 위치해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메가박스, 주민센터와 우체국 등이 있다. 지난해 백봉지구에 300병상 이상의 경기 공공의료원 유치도 확정됐다.

단지 앞에 사릉천이 있어 수변생활이 가능하고, 약대를 체육공원과 천마산, 백봉산, 체육문화센터 등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단지 인근으로 평동초, 호평중, 호평고 등이 있으며, 호평동 학원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GTX는 교통의 편리성 개선 뿐 아니라 거주 가치가 크게 향상된다”며 “도보 거리에 GTX-B노선 평내호평역이 개통되면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는 다산·별내·갈매지구 등과 함께 수도권 동북부 주거 벨트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다음' 분사로 갈등 심화... 노조는 단식농성 돌입

(DAUM)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 강조
임단협 결렬 시 일괄 결렬 선언
노조 "분사로 노동자만 피해" 반발
IT업계 "성장 동력 상실 우려"**

카카오가 토종 포털 '다음(DAUM)'을 분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분사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노조는 지회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19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광장에서 무분별한 분사 반대와 임금및단체협상 결렬을 예고하는 집회를 열었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사내 타운홀 미팅에서 포털사이트 다음을 분사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카카오가 사내독립기업(CIC)으로 독립하고 2년만이다.

카카오는 이번 분사를 "콘텐츠CIC 재도약을 위한 것"이라며 "포털 다음의 완전한 별도 법인 독립을 통해 독자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구



민주노총 산하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19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에서 '콘텐츠CIC' 분사매각 철회와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조가 서비스와 기술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빠르게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카카오는 분사를 발표할 자리에서 다음 내 소속 직원들에게 카카오 분사 잔류와 분사한 다음에 소속되는 것 두가지 선택지를 주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내부 구성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카카오 노조는 26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이전까지 임단협에 진전이 없을 시 일괄 결렬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카카오의 위기는 매번 대책 없는 분사로 시작됐다"며 "카카오커머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수많은 계열사의 분사·매각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위험은 온전히 노동자들의 몫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콘텐츠CIC 분사 후 폐업

을 하거나 지분이 누락돼 사업을 축소한다면 문제는 더 커지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운영 계획과 구체적인 비전도 밝히지 않은 즉흥적 결정으로 800명에게 가까운 노동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서비스 존폐에 관한 구체적 운영방안의 부재 ▲인력 처우 논의 없는 발표 ▲절차적 문제 등이다.

이들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경영 쇄신을 공언했지만 이번 분사·매각 결정은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무책임한 분사와 매각을 저지하고 모든 계열사와 함께하는 공동교섭 공동투쟁으로 임단협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분사를 두고 IT업계에서는 경영 효율화를 위한 비핵심 사업의 정리로 풀이하고 있다. 다음 사이트의 검색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며 비핵심 사업으로 밀려난 상황 속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인공지능(AI) 사업과의 연계성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포털 다음은 최근 국내 검색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현재 다음은 국내 검색시장에서 4위지만 이달 1일부터 17일 현재까지 2.79%를 기록하며 3%의 벽까지 깨졌다. 네이버가 구글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검색 시장에서 65% 점유율을 유지 중인 것과는 다르다. 구글은 전체 점유율의 26.96%를 차지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은 지난 2022년 9월 다음 블로그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부실 서비스에 대한 정리를 계속 하고 있다. 다음카페 오픈형 커뮤니티 '테이블'을 6월 론칭해 카카오톡과 연계함으로써 사용자를 모으긴 했으나 포털 다음의 성장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IT업계 관계자는 "(다음은) 네이버가 카페와 블로그의 포지셔닝에 성공하고 여기에서 축적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대 언어모델(LLM) 개발은 물론 '한국인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는 것과는 행보가 사뭇 다르다"며 "현재로서는 26일 주주총회에서 관련 발표가 있을지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엔비디아,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시대 연다

**AI 모델 'GR00T N1' 공개
인간처럼 움직이고 작업 수행**

엔비디아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할 기술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새너제지에서 열린 'GTC 2025'에서 개방형 휴머노이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엔비디아 아이작 GR00T N1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모델로, 로봇이 인간처럼 걷고, 물건을 잡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AI 에이전트가 뇌에 탑재된 피지컬(Physical·물리적) AI를 실현할 기술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엔비디아는 이 기술이 산업계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GR00T N1은 인간의 사고 방식을 모방한 이중 시스템 구조를 갖췄다. '시스템 1'은 인간의 반사 신경이나 직관을 반영한 신속한 사고 행동 모델이고, '시스템 2'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엔비디아가 18일 개방형 휴머노이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발표했다. /엔비디아

을 위한 느린 사고 모델이다. 시스템2는 비전 언어 모델을 통해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사용자 지시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을 계획한다. 시스템 1은 이러한 계획을 로봇의 움직임으로 바꾼다.

GR00T N1은 물체를 잡고, 이동하고, 옮기는 등의 일상적인 작업을 쉽게 일반화할 수 있다. 긴 맥락과 여러 기술의 조합이 필요한 다단계 작업도 수행 가능해 자재 취급, 포장, 검사 등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

개발자와 연구자들은 특정 휴머노이드 로봇과 작업에 맞춰 실제 또는 합성 데이터를 사용해 GR00T N1을 사후 훈련시킬 수 있다. 젠슨 황 CEO는 GTC 기조연설에서 1X 테크놀로지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GR00T N1을 기반으로 사후 훈련된 알고리즘을 사용해 자율적으로 집안일을 정리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이 로봇의 자율 기능은 1X 테크놀로지와 엔비디아의 AI 훈련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김현정 기자 hjk1@

LG CNS, 창고 자동화 물류 로봇 개발

'3D 모바일 셔틀' 등 솔루션 공개

AX(인공지능 전환) 전문 기업 LG CNS가 창고 자동화 물류 로봇을 앞세워 북미 물류 자동화 시장 진출에 나선다.

LG CNS는 3월 17~20일(현지 시간) 미국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물류 자동화 전시회 '프로맷(Promat) 2025'에서 창고 자동화 물류 로봇 '3D 모바일 셔틀'과 스마트 물류 솔루션을 공개했다.

LG CNS가 새롭게 개발한 '3D 모바일 셔틀'은 물류 창고 선반 내 물품을 수백대의 셔틀 로봇이 이동하며 운송·보관하는 자동화 로봇이다. 기존 설비는 좌우 두 방향으로만 움직여 물품 이동에 제약이 있고, 복도마다 선반을 설치해야 해 창고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

3D 모바일 셔틀은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효율적인 물품 운송·보관이 가능하다. LG CNS는 3D 모바일 셔틀에 수학적 최적화 기



LG CNS 직원이 17~20일(현지 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물류 자동화 전시회 '프로맷 2025'에서 창고 자동화 물류로봇 '3D 모바일 셔틀'과 스마트 물류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다. /LG CNS

술을 적용해 물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창고 이용 면적을 20% 이상 줄였다. 3D 모바일 셔틀은 일반 화물뿐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원통형 화물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LG CNS는 물류 자동화 설비와 이기종 로봇을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스마트 물류 솔루션도 선보였다. /김현정 기자

삼성SDS, AI 컴퓨팅 센터 사업 수주 경쟁 본격화

센터 구축에 적극 참여 의지 표명

삼성SDS가 19일 서울 송파구 사옥에서 개최된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회사는 이날 주주들의 질의에 "정부에서 진행되는 AI 컴퓨팅 센터 사업과 관련해 직접 수주에 참여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유인을 하려고 노력 하고 있

다"고 답했다.

이준희 삼성SDS 신임 대표는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대구 센터, 행안부(행정안전부), 복지부(보건복지부) 등 여러 가지 안전들이 있어서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2일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합작 투자를 통해 특수목적법

인(SPC)을 설립하고 약 2조원을 투입해 1엑사플롭스(EF) 이상의 성능을 내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2027년까지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사업은 국내 AI 반도체 산업 및 AI 연구·개발, AI 서비스 등 AI 컴퓨팅 생태계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 참여 대상은 국내·외 클라우드, 통신, AI 기업 컨소시엄이다. /김현정 기자

맨유 레전드 박지성·에브라 또 뭉쳤다

LGU+ '맨인유럽 2025' 공개

LG유플러스의 콘텐츠 전문 스튜디오 '스튜디오 X+U'가 19일 스포츠 예능 '맨인유럽'의 두번째 시즌인 '맨인유럽 2025'를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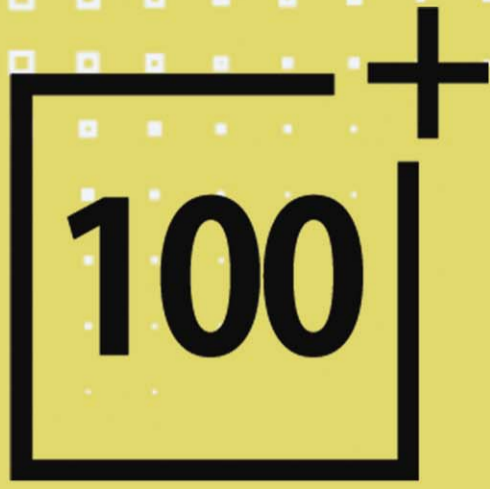
맨인유럽은 스튜디오 X+U와 디지털 콘텐츠 스튜디오 '숏포러브'가 공동 제작한 콘텐츠로, '후배 바보'로 불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 박지성과 그의 절친 파트리스 에브라가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 축구선수 후보들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해 1월 선보인 '맨인유럽' 시즌1은 1화 공개 직후 U+모바일tv 인기 콘텐츠 1위를 차지하고, 3월 기준 오리지널 예능 콘텐츠 시청건수·신규 시청자 유입 누적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었던 바 있다.

총 16회차로 구성된 '맨인유럽 2025'는 매주 수·목요일 0시 U+tv와 U+모바일tv, 목요일 오후 9시 40분 채널A에서 시청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2025년 3월 25일(화) 오후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일 시 2025년 3월 25일(화)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 ~ 14:10	〈축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 ~ 14:5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 전망
강연	14:50 ~ 15:25	염승환 LS증권 이사 : 미국 주식 여전히 유효한가...증시 전망과 투자전략
	15:25 ~ 16:00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어보기
	16:00 ~ 16:35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은퇴 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16:35~17:1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내집마련은 언제?...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사 소개



김영익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컬리지 수료



염승환
- LS증권 이사
-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본부장
-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호지영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 前 대신증권 WM추진부
- 前 KPMG 삼정회계법인 컨설팅본부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딥시크’ 효과에 中·홍콩증시 급등... 불안요소 우려는 여전

국내 투자자, 中·홍콩증시 순매수 AI 독점 美 대체재 기대감 커져 미중 갈등 심화 등 대비 필요

#직장인 장종훈(38)씨는 지난달 홍콩증시에 상장된 샤오미 주식을 3000만 원어치 사들였다. 가성비가 뛰어나 ‘대륙의 실수’라는 별명을 얻은 샤오미의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자, 추격 매수에 나선 것이다. 샤오미 주가는 스마트폰의 성공에 이어 전기차 사업까지 호조를 보인 덕분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장씨는 “매수 가격대가 좀 높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증시 격언을 믿고 투자했다”고 말했다.

최근 홍콩·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타자 국내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안고 추격



홍콩거래소(HKEX)에서 준철 이후 첫 개장을 맞아 정을 치고 있다. /뉴시스

매수에 나선 것이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8일(결제일 기준) 국내 투자자는 홍콩 증시에서 3억7017만 달러어치 순매수했다. 1월 만 해도 개미들은 1596만달러 매도 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2월 1억8864만 달러 순매수했고, 이달에는 1억9749만 달러 순매수 중이다. 개미들은 중국 본토 쇼핑에도 나섰다. 올해 들어 2821만7647달러 순매수했다. 중국과 홍콩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9월부터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내수 부양 의지를 밝히면서다. 지

난 4년간 부진했던 홍콩 증시는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 효과에 힘입어 올들어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 기술기업에 대대적 지원 제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딥시크의 등장으로 중국이 ‘AI 독점’ 지위를 지켜온 미국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한때 투자자를 공포로 몰아넣은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도 안정권에 진입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ELS는 2022년 기초자산인 홍콩 H지수 4938~8789 구간에서 발행됐다. 현재 지수는 9000선을 넘나든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딥시크로 인해 혁신이 미국 빅테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식되기 시작했다”며 “중국 기술업체들의 가치 대비 시가총액은 미국 업체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

해 들어 중국 테크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혁신 기업의 부상(딥시크 효과), 정부 규제 완화 후 육성 정책 전환,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 등이 차이나 테크 밸리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가가 단기간 급등했고, 중국의 고질적인 부채 문제와 보호무역주의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전 연구원은 “홍콩증시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추가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과 미중 협상 지연으로 인해 4월 초까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으로 ▲첨단 제조 ▲낙폭 과대 플랫폼 ▲내수 소비주를 꼽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계속 늘어나는 불성실공시... “강력 제재 필요” 거래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올해 38건 지정... 코스닥 가장 많아 상장유지 요건 강화에도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성실공시 퇴출’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시를 늦게 하거나 내용을 누락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38건 중 코스닥 종목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와 코넥스는 각각 11건, 2건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상장사가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을 번복·변경했을 때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는 제도다. 주요 유형으로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 변경 등이 있으며, 특히 유상증자 철회, 단일판매·공급계약 변경, 단기차입금 증가 지연공시 등이 주요 사유로 꼽힌

다. 이로 인해 부과되는 벌점이 누적돼,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벌점이 누적된 기업은 총 92개사로, 이 중 15점 이상인 기업도 10개사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불성실공시가 반복될 경우 시장과 공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투자심리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유상증자 발행금액 관련 공시변경으로 지난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 제이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최근 5%가량 하락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밸류업’ 정책은 공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가치 제고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어, 불성실공시 증가세는 정책 실효성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시 관리가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불성실공시로 지정되면 기업의 신뢰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경영투명성과 주주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밸류업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지만, 제재금이 낮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금양의 경우 유상증자 공시 번복으로 인해 벌점 7점과 제재금 7000만원이 부과됐을 뿐이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이 악화된 기업들은 어차피 도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시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할 수도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공정 공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공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벌금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금투협·증권사 등과 구축 시연회 가져 이복현 “자본시장 신뢰회복 기여 기대”

한국거래소는 1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주요 국내 증권사 및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금투협, 업계 등과 함께 2023년 11월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무차입공매도가 반복적 발생에 따라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작년 7월부터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했으며, 현재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거래소는 이번 시스템에 대해 실시간 매도가능잔고 초과 여부를 판단해 무차입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연회는 이달 31일 예정돼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 전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황을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투



(왼쪽부터)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의 데이터를 이용한 불법공매도 적출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자자 잔고 보고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매매정보와 잔고정보를 대사하는 NSDS 시스템 운영을 현장에서 시연해 실제 무차입 공매도 적출 환경을 재연하는 방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전산화가 우리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주의 보호, 외국인의 투자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글로벌 선진시장으로 도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시연회가 불법 공매도를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장관리자로서 정교한 시장감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

흡플러스 전단체 피해규모 300억 추정

등급 하락 인지하고도 발행 의혹

흡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들이 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가 300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MBK파트너스가 흡플러스의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전단체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흡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피해자들이 19일 오전 11시 흡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있는 광화문 D타워 앞에서 ‘MBK 김병주 회장! 흡플러스 유동화전단체 원금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모인 피해자들은 약 7~80명이며,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액은 300억원 수준으로 알려

졌다. 피해 발생 초기 단계인 만큼 피해자 및 피해액 규모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날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MBK파트너스는 우리 피해자들이 이번 사재 출연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회생법원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주겠다고 말했다”며 “이건 결과적으로 피해액의 10% 주고 말겠다는 뜻이고, 나머지는 금융감독원에 달려가 가장 말단에서 판매했던 증권사와 치고받고 싸워서 받아내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뿐만 아니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흡플러스는 “유동화증권 변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당사에 있으므로 해당 채권이 전액 변



19일 오전 11시 흡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있는 광화문 D타워 앞에서 ‘흡플러스 유동화전단체 원금반환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흡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피해자들은 사측에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제되는 것을 목표로 증권사들과 함께 회생절차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비대위는 구체적인 유동화증권 변제 계획도 밝히지 않았고, 회생절차에 따르겠다는 부분 역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하은 기자

TIGER 커버드콜 ETF, 주식형 수익률 1위

미래에셋운용, 이달 특별배당 실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커버드콜 ETF’가 국내 및 해외 주식형에서 각각 연초 이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1.91%다. 올 들어 우수한 수익률을 지속해오며 이달

말 특별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배당성장성을 갖춘 국내 우량기업에 투자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꾸준한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배당과 자산주 매입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배당성장주에 집중 투자해 자본 차익과 배당 수익을 균형 있게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식품·유통업계 주총 키워드 ‘책임경영 강화·신사업 확대’”

**유통업계, 사내·사외이사 선임 등 경영진 책임강화·전문성 제고
사업 확장 위해 정관개정 추진
사명변경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국내 식품·유통업계가 올해 정기 주총회 시즌에 본격 돌입하면서, 주요 기업들이 신사업 확장과 책임경영 강화를 통해 변화를 꾀한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신세계, 롯데하이마트, GS리테일, 호텔신라를 시작으로 21일 농심, 24일 롯데쇼핑이 주총을 연다. 이어 25일에는 한화켄러리아, 아모레퍼시픽그룹, LG생활건강,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이 주총을 개최하며, 26일에는 CJ, KT&G, 현대백화점, BGF리테일, 삼양식품이 주총을 진행할 예정이다.

◆ 책임경영 강화 및 이사진 개편

올해 유통업계 주총의 핵심 포인트는 경영진의 책임 강화와 전문성 제고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5년 만에 롯데쇼핑 사내이사로 복귀하면서 본업인 ‘유통 강화’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신사업을 확장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기업 이미지.

다. 다만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직은 연임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이영구 롯데그룹 식품군HQ 총괄대표가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된다.

GS리테일은 20일 주총에서 허서홍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현대백화점은 26일 주총에서 정지영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계획이다.

또한, CJ제일제당은 25일 주총에서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

다. 정 전 장관이 농식품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28일 안일환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다룬다. 안 전 차관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업무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롯데웰푸드는 김도식 현대자동차 자문역과 손은경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김도식 자문역은 기아자동차 인도 법인 경영지원실장, 현대자동차대외협력담당을 지낸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롯데웰푸드가 역점을 두는 인도 식품 시장 공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정관 개정 추진해 신사업 확장

이번 주총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 롯데하이마트는 사업목적에 ‘전자·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관련 기기·부속품 제조’와 ‘방문판매 및 부수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호텔신라는 ‘종합휴양업’, ‘콘도미니엄 분양·운영업’, ‘노인주거·여가복지 설치 및 운영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며,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면세 사업이 악화됨에 따라 시니어 사업으로 부진을 타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농심은 스마트팜 사업을 정관상 사업 목적에 공식적으로 추가하며, 첨단 농업 기술을 활용한 생산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동원에프앤비는 총 17개

의 사업목적을 정관에 추가하며, 특히 ‘애완동물 관련 용품 판매 및 유통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원에프앤비는 지난 12일 미국 반려동물용품 브랜드 암앤해머와 국내 독점 공급계약을 맺는 등 관련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

◆ 사명 변경을 통한 글로벌 시장 공략

일부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 오투기는 영문 사명을 기존 ‘OTTOGIC CORPORATION’에서 ‘OTOKI CORPORATION’으로 변경해 해외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아모레퍼시픽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해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신세계센트럴 시티는 ‘신세계센트럴’로 사명을 변경해 종합 부동산 개발회사로 도약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정기 주총회의 핵심 키워드는 신사업 확대와 책임경영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각 기업이 신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삼양식품, 지난해 해외매출 1조3359억 기록

**전년비 65% 늘어... 전체매출 80%
美 월마트 등 유통채널 진출 추진
신제품 출시 등 中 현지 맞춤형 전략**

삼양식품이 해외매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삼양식품은 연결기준 지난해 해외매출이 전년 대비 65% 증가한 1조3359억원을 기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불닭브랜드의 글로벌 인기로 삼양식품의 해외부문은 매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900억원대였던 해외매출은 2020년 3000억원, 2022년 6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3년 8000억원을 넘어선 지 1년만에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해외매출의 급격한 증가는 현지법인이 이끌었다. 특히 미국과 중국법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미국법인은 전년 대비 127% 상승한 2억8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미국 전역 월마트에 입점을 완료하고, 코스트코를 비롯해 하반기엔 크로거, 타겟에도 입점을 시작하는 등 메인스트림(주류) 유통채널 진출을 적극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

중국법인은 푸파퐁커리불닭볶음면 등 신제품 출시와 불닭소스 켈래버 이벤트 등 현지 맞춤형 전략에 힘입어 전년 대비 75% 증가한 21억위안의 매출을 달성했다.

삼양식품은 올해 해외사업부문이 또 한번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6월 밀양2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어서다. 삼양식품은 지난해부터 생산공장을 최대로 가동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밀양2공장을 통해 확보한 추가적인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이 같은 글로벌 수요 증가세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현지법인과 밀양공장을 앞세워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올해도 외형 확장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조7280억원, 영업이익 3446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5%, 영업이익은 133% 증가했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노브랜드’, 신상품으로 물가안정 지원

슈퍼말차 켈래버 제품 등 선보

이마트가 자체 브랜드(PB) 노브랜드와 차 브랜드 ‘슈퍼말차’가 협업한 ‘노브랜드X슈퍼말차’ 켈래버 상품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상품은 말차 샌드위치, 말차 초코단백질바, 말차 양갱, 말차 마들렌, 말차 에스프레소 라떼 총 5종으로 구성됐다. 이마트 전 점포와 노브랜드 전문점, SSG닷컴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5종 상품 모두 국내산 유기농 말차를 사용해 특유의 깊고 진한 맛을 구현했다. 특히, 말차 에스프레소 라떼는 슈퍼말차 브랜드의 인기 대표 메뉴이기도 하다.

한편, 이마트 노브랜드는 생활용품

분야에서도 신상품을 선보인다. 고객들의 생활용품 장비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신상품 출시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노브랜드는 올해 생활용품 품목 중 15% 이상을 신규 상품으로 운영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노브랜드 IH 겸용 셀렉트 프라이팬 6종’과 저소음 키보드인 ‘노브랜드 조용한 멤브레인 키보드’ 등이 있다.

이마트 노브랜드 노브랜드 사업부장은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성비와 품질 모두 갖춘 노브랜드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며 “이에 노브랜드는 식품과 비식품 부문 모두에서 신상품을 적극 개발해, 장비구니 물가 안정에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하이트진로 ‘테라’, 리뉴얼로 재도약 추진

출시 6주년 ‘테라 Jump Up’ 캠페인

하이트진로가 차별화된 ‘청정라거’ 콘셉트로 2019년 3월 출시해 주류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테라(TERRA·사진) 맥주의 제2의 도약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출시 이후 또 한번 시대의 요구와 트렌드를 반영한 ‘테라 Jump Up 2025!’ 캠페인으로 6주년 맞은 테라의 재할성화 및 대세감 확대 활동을 시작한다고 19일 선언했다.

‘100% 청정맥아’, ‘100% 리얼탄산’ 테라는 출시 후 39일만에 최단기간 100만 상자, 6년만에 52억병 판매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일관된 청정



콘셉트의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해 주요 브랜드 지표가 경쟁사 대표 브랜드 대비 우위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맥주 브랜드로 성장했다.

하이트진로는 테라 출시 6주년을 재도약의 계기로 삼고 맥주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테라 브랜드에 ‘신선함’을 부여

하는 신규 활동들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패키지 리뉴얼을 단행해 브랜드 가독성 및 로고 주목도를 강화한다. 출시 6년 만에 브랜드 모델을 변경하고, 신규 광고물을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 재고에 나선다. 가정 시장 확대에 따른 시장세분화 전략으로 채널별 신규 SKU 확대하고, 소비자 편의성 증대 행사를 추가로 기획할 예정이다.

또한, 그 동안의 대세감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자사 타 브랜드들의 인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시너지 마케팅과 인지도가 높고 테라의 청정 이미지와 적합성이 뛰어난 이종업체 브랜드와의 협업 마케팅을 실시한다. /신원선 기자

“2027년엔 충청·강원권도 ‘로켓배송’”

쿠팡, ‘제천첨단물류센터’ 착공식

쿠팡이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천제3산업단지에서 ‘제천첨단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열린 착공식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 임태영 국회의원, 이동욱 충북도 행정부지사, 김창규 제천시장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쿠팡은 제천첨단물류센터에 최대 1000억원을 투자해 지상 2층, 연면적 약 1만6000평 규모로 건립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오는 2026년 6월 준공, 2027년 상반기 운영 시작을 목표로 하며 충청 및 강



쿠팡 제천첨단물류센터 조감도. /쿠팡

원권 ‘로켓배송’ 확대를 위한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쿠팡은 제천첨단물류센터를 통해 최대 500명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제천시의 인구 유입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쿠팡 측은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제약·바이오업계, 골다공증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시장 격돌

판매협력 등 경쟁력 확보 팔 걷어

셀트리온제약·대웅제약
‘스토보클로’ 출시... 공동 판매

삼바에피스·한미약품
양사 전문역량 바탕 마케팅 협력

HK이노엔·맵사이언스
품목허가 신청... 연내승인 목표



유영호 셀트리온제약 대표(왼쪽)와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오른쪽)가 지난해 10월 셀트리온제약 서울사무소에서 ‘CT-P41(스토보클로 개발용) 공동판매 계약’ 체결을 기념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셀트리온제약



삼삼바이오에피스 김경아 사장(왼쪽)과 한미약품 박재현 사장(오른쪽)이 지난 18일 ‘골다공증 치료제 국내 공동판매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미약품

국내 주요바이오시밀러 개발사인 셀트리온, 삼삼바이오에피스 등이 신제품 발매를 앞두고 각각 공동판매 협력을 맺으며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과 대웅제약이 국내 첫 번째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성분명: 데노수맙)’를 공식 출시한다.

스토보클로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골다공증 치료제로, 지난해 11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 해당 품목허가는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치료, 남성 골밀도 증가 치료 등 오리지널 의약품인 프롤리아

의 전체 적응증에 대해 이뤄졌다.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로는 스토보클로가 처음으로 국내 승인을 받아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 지위까지 확보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보험 약가 등재 과정을 통해 ‘스토보클로프리필드시린지 60mg/1ml’ 약가는 11만1384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28% 낮은 가격이다. 또 스토보클로는 1회 주사로 6개월 간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나 병원 방문 횟수, 의료진의 투약 관리 부담 등

에서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셀트리온제약과 대웅제약은 전국 종합병원 및 병·의원을 대상으로 스토보클로 공동 판매에 나선다. 특히 대웅제약은 독자 구축한 ‘검증 4단계’ 마케팅 전략으로 스토보클로의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삼삼바이오에피스는 한미약품과 협력해 국내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삼바이오에피스는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SB16(성분명: 데노수맙)’ 개발사로서 제품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고,

국내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은 양사가 함께 추진한다.

삼삼바이오에피스는 현재 국내에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난 2월 허가를 획득했다. SB16의 미국명과 유럽명은 각각 오스포미브, 오보텐스 등이다.

삼삼바이오에피스와 한미약품은 근골격계 치료제 시장에서 이미 입지를 다진 양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근거 중심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HK이노엔은 국내 프롤리아 바이

오시밀러 시장 공략을 위해 스페인 맵사이언스의 물질을 도입했다. HK이노엔과 맵사이언스는 지난 2022년 12월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HK이노엔은 현재 국내에서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고 연내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들의 경쟁은 오는 5월 말~6월 초부터 국내외에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지널 의약품 프롤리아의 특허가 국내, 미국, 유럽 등에서 각각 올해 2월, 3월, 11월에 순차적으로 만료되면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영향력은 확대된다는 분석이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 기업간의 공동판매 전략은 그동안 많이 이뤄져 왔는데, 최근 들어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으로도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난다”며 “제품을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제품 자체의 경쟁력에 유통 및 공급망까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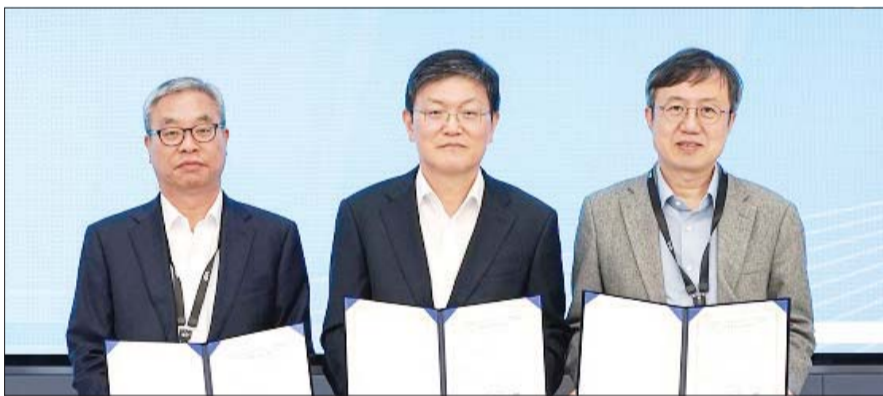
삼바로직스, 바이오생태계 활성화 팔 걷어

서울대·연세대 상생기부 협약 체결
6억6500만원 상당 원부자재 전달

삼삼바이오로직스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연세대학교 약학대학과 상생기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삼바이오로직스 바이오플라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동중 삼삼바이오로직스 상생협력센터장, 장판식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김익연 연세대 약학대학 학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삼삼바이오로직스는 앞서 고객사인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과정에서 발생한 미사용 세포 배양 배지를 국내에 기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제품을 연구에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학계 내 수요를 조사했고 서울대와 연세대에 약 6억6500만원 상당의 원부자재 총 1090kg을 전달하게 됐다.



19일 오전 인천 송도 삼삼바이오로직스에서 열린 ‘상생기부 협약식’에서 장판식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왼쪽부터), 김동중 삼삼바이오로직스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 김익연 연세대 약학대학 학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삼바이오로직스

삼삼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 소부장, 인재 육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상생 협력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상생협력센터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과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김동중삼삼바이오로직스상생협력센터

장은 “대학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삼삼바이오로직스 상생협력센터가 대학과의 상생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연구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며 산학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코스맥스펫, 반려동물 건강·영양 연구 강화

대학, 연구소 업무협약 체결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펫은 지난 18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단국대 천안산학협력단 및 스마트동물바이오연구소와 ‘반려동물 건강 및 영양 연구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첨가제 개발 ▲첨단 연구기반 공동 활용 ▲전문 인력 양성 등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코스맥스펫은 연구개발 총괄과 제품 승인을 맡았다. 코스맥스펫은 이번 연구 협력에서 코스맥스그룹이 보유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적극 활용한다.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효과가 있는 소재를 발굴해 임상 효능 및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코스맥스그룹 내 건강기능식품

ODM 기업인 코스맥스엔비티와 코스맥스바이오는 다양한 개별인정형 원료 소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코스맥스엔비티의 관절 건강 개별인정형 원료인 ‘타베트리(타히보추출물)’는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에서 관절 건강에 대한 효능 검증을 마쳤다.

단국대 천안산학협력단은 연구계획 수립 및 효능 평가를 맡는다. 특히 스마트동물바이오 연구소는 반려동물 친화 공간을 갖춘 최첨단 연구시설에서 임상 시험과 안전성 검증을 진행한다.

진호정 코스맥스펫 대표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내 반려동물과 좋은 것과 좋은 경험을 함께 공유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1위 화장품 ODM 기업인 코스맥스그룹이 그동안 쌓아온 화장품과 건식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반려동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강스템바이오텍, ‘오스카’ 장기추적 유효성 확인

(골관절염 치료제)

무릎관절 전반 구조적 개선 관찰

강스템바이오텍은 최근 골관절염 치료제 ‘오스카’ 임상 1상에서 고용량군에 대한 12개월 장기추적 방문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스템바이오텍에 따르면, 무릎관절 강 내 단회 주사투여 후 통증조절과 관절기능에 대한 유효성 평가에서 6개월 시점과 마찬가지로 중용량군 및 고용량군의 모든 대상자에서 12개월 시점에서

도 개선이 유지되거나 더 좋아진 대상자들이 확인됐다.

MRI 영상평가에서 무릎관절 중 가장 손상이 심한 부위의 개선여부를 평가하는 MOCART는 6개월 시점에서 대부분의 환자에서 개선 또는 손상의 진행 없음(10명 중 7명 개선, 1명 변화 없음)을 보였다.

전체 무릎관절 전반의 구조적 평가를 위한 WORMS에선 연골, 연골하골 재생 및 낭종, 활막염 개선 등을 통해 구조

적 개선이 관찰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중용량군과 고용량군 대상자들에게서 투약 후 신속하게 확인된 통증과 관절기능 개선이 12개월 시점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일부 더 좋아진 환자도 있어 오스카의 근본적 치료제로써의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12개월 영상평가가 완료된 저용량군과 중용량군은 6개월 시점에서 확인된 효과가 유지되거나 더 개선되는 경향을 확인했다.

/이청하 기자

스타벅스, 슈크림 음료 2종 200만잔 팔려

판매기간 2주일 연장 방침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3월 5일 선보인 슈크림 음료 2종이 출시 2주 만에 200만 잔 판매를 넘어서며 슈크림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스타벅스 매장의 통상 영업시간 내에 1초당 약 3잔씩 판매된 셈이다.

올해는 봄 시즌 스테디셀러 ‘슈크림 라떼’와 함께 슈크림 라떼를 말차 버전으로 재해석한 신규 음료인 ‘슈크림 말차 라떼’를 추가하며, 슈크림의 달콤함

은 물론 씹사름한 색다른 풍미의 슈크림 음료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올해 ‘슈크림 라떼’는 기존보다 당과 칼로리를 10%씩 낮춰 개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볍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 같은 슈크림 음료의 인기에 힘입어 ‘슈크림 라떼’의 판매 기간을 2주일 연장할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HANA THE NEXT

하나더넥스트

시니어의 소중한 인생 2막을 위한 하나금융그룹만의 솔루션

나를 위한 현명한 선택!



▶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하나더넥스트 랩 시리즈

안정적인 삶을 위한 균형잡힌 투자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 은퇴 전/후 손님을 위한 미래자산 포트폴리오 설계 ◆



국내

하나더넥스트 K배당재투자랩

랩 수수료 | 선취형 : 선취 0.6%, 후취연 1.2% · 기본형 : 후취연 1.5%



해외

하나더넥스트 글로벌인컴랩

랩 수수료 | 선취형 : 선취 0.8%, 후취연 1.0% · 기본형 : 후취연 1.5%

랩상품 Point

- 안정성 추구 전략으로 수익 다각화
- AI 알고리즘을 통한 투자 최적화 추구
- 손님 니즈에 따른 투자 지역 선택 가능(국내 / 해외)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이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0164호(2025.01.17~2026.01.16), CC브랜드250117-0267

하나증권



하나은행, '춘천 하나50+컬처뱅크' 개점

하나은행이 강원도 춘천시에서 민관협력 최초로 중장년 노후준비지원센터 '춘천 하나50+컬처뱅크'를 개점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춘천 하나50+컬처뱅크'에서 중장년층의 미래설계를 위한 금융교육 및 상담을 제공한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왼쪽 세 번째)과 육동한 춘천시장(왼쪽 두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KB국민은행-관세청, 무역·외환 관리 시스템 고도화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역·외환 이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무역·외환 관련 이상거래에 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고광호 관세청장(왼쪽),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벤처협-연길시-룽마트그룹, 수출 판로확대 MOU

벤처기업협회는 중국 연길시, 중국 룽마트그룹과 지난 18일 서울 구로구 협회에서 벤처기업의 중국 연길 시장 진출 및 수출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왼쪽부터)박철남 룽마트그룹 회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장학빈 연길시 부시장, 신성해 연길시 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롯데GRS, 장애어린이들 재활 치료 돕는다

롯데GRS가 장애어린이들의 재활 치료를 위한 롯데의료재단의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 운영기금 모금' 캠페인에 후원하며 긍정 문화 및 ESG 가치 확산에 앞장선다. 롯데GRS는 캠페인 운영 기간 동안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엔제리너스의 커피를 후원해 계열사 임직원 대상 긍정 문화 확산 및 공헌 캠페인 활성화에 도모한다. /롯데GRS



이노비즈협회, '일본 우수기업 초청 간담회' 성료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18일 경기 판교 협회에서 '일본 우수기업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는 일본 대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광천 협회장(가운데)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삼성복지재단, 전국 어린이집 대상 보육지원 사업 추진

영유아 발달지원 플랫폼 등 구축
"함께 잘사는 행복한 사회 만들어야"

삼성복지재단은 전국 어린이집 대상 '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육 지원 프로그램은 삼성어린이집뿐 아니라 전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아의 정서·행동 문제 예방, 마음 건강, 다양성 존중 등 '의의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아동행동전문가 양성 및 파견 ▲영유아 발달지원 플랫폼 구축 ▲유아마음성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대외 보급 ▲전국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특강 개최 등이다.



삼성복지재단이 진행한 아동행동전문가 양성과정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삼성전자

앞서 재단은 국내 최초로 영유아의 부적응 행동을 분석, 교사에게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아동행동 전문가 18명을 양성했다. 이달 중 아동행동 전문가 양성 과정 참여자를 신규 모집하고 선발해 약 9개월간의

전문과정을 거쳐 연말에 전문가 20명을 추가 배출한다.

재단은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부적응 영유아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아동행동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이다.

재단은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

를 널리 알리고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 현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육사업으로 더욱 확장된 사회공헌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기아, 'KBO 디스플레이 테마' 공개

구단별 맞춤형 디지털 상품

기아는 국내 프로야구 '2025 KBO 리그' 개막을 앞두고 야구팬들을 위한 'KBO 디스플레이 테마'를 19일 공개했다.

KBO 디스플레이 테마는 고객이 차량의 대화면 ccNC 디스플레이 색상 및 그래픽을 구단별로 취향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상품이다.

기아는 이번 상품으로 KBO 10개 구단별 팀 로고와 키 컬러가 반영된 '클러스터', 팀 유니폼을 입은 선수

들과 마스크로 구성된 '인포테인먼트 홈카드 및 프로필', 팀 마스크 트가내 차의 위치를 표시하는 '내비게이션' 등을 제공한다.

기아는 KBO 디스플레이 테마를 '더 기아 EV4'에 최초로 적용하고 향후 ccNC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다른 차종에 확대할 예정이다.

KBO 디스플레이 테마의 가격은 각 팀당 2만9900원으로 한번 구매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월 중 판매 예정이며 설치하는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양성준 기자 ysw@



한화오션이 경남 거제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상생위원회 '임파워링 거제'를 공식 출범했다. (첫줄 왼쪽 여섯번째)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등 참가자들이 상생 협력을 다짐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화오션

한화오션, '임파워링 거제' 출범

경제 활성화 등 동반성장 도모

한화오션이 경남 거제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상생위원회 '임파워링 거제'를 공식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거제 지역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한화오션은 이날 거제사업장 해피니스홀에서 공식 출범 행사를 갖고 관내 36개 주요 행정기관·사회복지기관·시민단체와 지역 경제 활성화, 해양환경 보호 및 개선, 사회 안전망 체계 강화 등을 위한 상호협약(MOU)을 체결했다. 각 기관 및 단체가 함께 각자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자는 의지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 경제 발전·활력을 위한 프로그램, 환경 보호 및

개선 프로그램, 사회안전망·구축 프로그램 등 3대 분야에 걸친 다양한 중장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오션사회봉사단'도 함께 발족해 회사 주도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사회봉사 단체들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경영정상화를 이루기까지 회사를 응원하고 격려한 시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화오션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역 기관 및 단체와 한화오션이 임파워링 거제로 하나 돼, 지역상생 활동을 시작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유한킴벌리, '나무심기' 참가자 모집

신혼부부 대상... 31일까지 접수

유한킴벌리가 숲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유한킴벌리는 내달 12일 인제 자작나무숲에서 진행되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2025 신혼부부 나무심기' 참가자 100쌍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과거 신혼부부 나무심기에 참가했던 가족도 함께 모집한다.

오는 31일까지 유한킴벌리 공식 홈페이지 또는 SNS 계정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빛나 기자 vitna@

인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조사총괄과장 강대현
- ◆비온드포스트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 유현희 △부사장 겸 총괄본부장 이순곤 △이사 겸 부국장 황상욱 △이봉진 글로벌대학팀장
- ◆파이낸셜포스트 △금융부장 배태호
- ◆프레시안 대구경북취재본부 △본부장 김기호 △본부부장 김옥한

부음

▲이순희씨 별세, 현준호(경기방송 대표이사)씨 장모상=19일, 경기 용인시

용인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9호, 발인 21일. 031-678-7600

▲구본홍씨 별세, 김진욱씨 남편상, 구은모(아시아경제 유통경제부 기자)·현모씨 부친상 = 18일, 순천향부천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032-327-3060

▲현정희씨 별세, 김규석·규복(GS건설 플랜트사업본부 설계1부문장)·선자·선희·선미씨 모친상, 송태경, 이범영, 신승선씨 장모상, 서미영씨 시모상 =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02-3010-2000

▲김형덕씨 별세, 오승환(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선수)씨 모친상 = 18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21일. 02-923-4442

중진공 "‘챌린지진단’ 받아보세요"

27일까지 1차 모집... 50개사 선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2025년 챌린지진단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9일 중진공에 따르면 챌린지진단은 분야별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 특성에 맞춘 솔루션 제공해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문제 해결형 진단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50억원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신청기업 중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중진공은 이번 1차 모집을 통해 약 5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2차 모집은 6월께 진행할 예정이다.

챌린지진단 참여 희망 기업은 이달 27일까지 중진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기업 발길질에 성장엔진 멈출 판



김문호의
단상

미국의 무차별적 통상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수조 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 개발 비용만 최소 6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은 1970년대 처음 논의된 이래 경제성,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이 여러 차례 중단됐던 장기 공전 사업이다.

우리 정부나 기업들은 결정된 것은 없다지만, 트럼프의 “한국이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라는 말 한마디는 한국 기업 처지에서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우선주의’ 실체를 드러낸 것은 처음도 아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달 21일(현지시간) 최대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사절단을 면담할 자리에서 한국

기업이 미 행정부의 ‘패스트 트랙’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1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조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돼야 미국 정부가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를 주는 패스트 트랙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미국에서 장사하기가 갈수록 팍팍해질 것이라 말로 들린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기업 경영에 치명적일 정도로 과격한 반기업 법안이 수두룩하다. 이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도 다시 발의 됐다. 이들 법안이 실현되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은 쉬워지고, 기업 경영진은 남발하는 소송을 감당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은 경영 분쟁에 시달리는 일이다. 경영권 방어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각종 환경·안전 규제는 또 어떤가. 기업들의 숨통을 죄다. 제조업체 최고경영자 A씨는 “기업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수천 개의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적대적인 경영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국내 투자를 중단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기업들은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 위로 탄핵과 트럼프 충격이 덮쳐 산업 전반이 생사기로 내놓

다.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석유화학·건설 등 전방위로 기업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도 줄줄이 대기 중인 반기업 규제 법안들까지 하나둘씩 국회 문턱을 넘으면 경제의 엔진을 멈춰 서게 만들 것이다.

괜한 엄살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5% 감소했다. 내수도 마찬가지다. 악화된 환경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 통계청의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재화소비를 뜻하는 1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0월과 11월 0.7%씩 감소했다가 12월(0.2%) 소폭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설비 투자도 전달보다 14.2% 빠졌다. 2020년 10월(-16.7%)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2.6%),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7.5%)에서 줄어든 여파가 컸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은 기업일 수밖에 없다. 기업이 무너지면 아무리 세금을 퍼부어도 실업 대란을 막을 수 없다. 정치권은 반기업 정책을 거두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본시장부장 kmh@metroseoul.co.kr

소비자는 비싸게, 산업은 위축... 누굴 위한 주세법인가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국내 주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이 주류에 종량세(술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종가세(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를 유지하고 있다. 종가세는 제품 가격이 오를수록 세금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질의 주류를 생산할수록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고급 주류는 원료비와 숙성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종가세 체계에서는 이러한 생산 비용 증가가 세금 부담으로 직결되면

서 시장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진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에는 출고가의 30%,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에는 출고가의 72%가 주세로 부과되며, 여기에 교육세(30%)와 부가가치세(10%)가 추가로 가산된다. 그 결과 위스키, 프리미엄 소주, 전통주 등 고급 주류일수록 소비자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 활성화에 제약이 걸린다.

2019년 맥주에 종량세가 도입된 이후 수제맥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위스키나 지역 특산주는 여전히 높은 세율과 엄격한 규제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위스키 업계는 주세법이 지난 35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으며, 한국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만큼 증류주에 부과되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만 유독 비싼 세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국내 주류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종량세 도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희석식 소주의 가격 상승 가능성 때문이다. 소주는 대중적인 주류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위스키 제품이 한국에서만 유독 비싼 가격에 판매되면서 해외에서 원정 구매 후 재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내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주류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요소가 많은 현행 주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tree6834@

오늘의 운세 3월 20일 (음 2월 21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격한 말로 상대를 노하게 한다. **48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배회하는 격. **60년생** 새 소식을 듣고 문서에서 황제. **72년생** 광기와 천재성 사이의 거리는 오직 성공으로 측정되는데. **84년생** 순풍에 돛대배 가듯이 손조로운 하루.
- 37년생** 못지 않으려면 장사를 접어라. **49년생** 독단적인 처리가 발목을 잡는다. **61년생**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73년생** 마음을 경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해라. **85년생** 가진 것이 없으니 가족도 부담된다.
- 38년생** 당장 고쳐야 할 것을 버려두지 곤란을 겪는다. **50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도 생각. **62년생** 부지런하다 보면 작게라도 이룬다. **74년생** 동시기 직전이 가장 어렵다. **86년생** 기죽지 말고 가슴을 펴고 살라.
- 39년생** 결혼은 돌이키는 거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 **51년생** 조상제사에 꼭 참석해야. **63년생** 하나를 얻으려고 셋을 포기하는 격. **75년생** 고인 물은 흘러보내야 썩지 않는다. **87년생**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보는 것도.
- 40년생** 친척과의 대화가 근심을 가져온다. **52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64년생** 간발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넘나든다. **76년생** 고양이 묘두현령(貓頭懸鈴)을 누가 할 것인가. **88년생** 거짓말로 변명거리가 필요.
- 41년생** 가난뱅이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없을 것. **53년생** 향기 없는 꽃에 속지 마라. **65년생** 영토가 넓어야 힘이 세듯 주시되다는 부동산술. **77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라. **89년생**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렵지 않다.
- 42년생** 휴식이 없는 인생이 서글프다. **54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에 차라. **66년생** 헛된 욕심으로 가족을 괴롭히지 마라. **78년생** 고래 싸움에 새우도 터지니 실력을 키워라. **90년생** 앞만 달린 이가 빠진 것처럼 일이 계속 풀린다.
- 43년생** 새 소식이 문전에서 바로 온다. **55년생**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자기 주변부터 살피라. **67년생** 물이 들어오니 노를 할것 저러라. **79년생** 생각을 바꾸면 긍정적인 길이 보인다. **91년생** 정치에 관심 말고 경제에 신경을 쓰라.
- 44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이제 행동할 때이다. **56년생** 시험장소는 정동 쪽만 피하고 움직여라. **68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애 충실. **80년생** 하던 일이 큰 성과를 내서 명예를 높인다. **92년생** 현실을 각성해야 발전이 되니.
- 45년생** 비현실의 잠에서 깨어나 보도록. **57년생** 날이 항상 맑지만 비리지 마라. **69년생** 가보지 못한 길에 그리움이 쌓인다. **81년생** 공부하면서 기도를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이 난다. **93년생** 잔소리를 하기보다 마음을 편하게.
- 46년생** 거창한 구호에 속지 않도록 해야. **58년생** 오랜 적선이 드디어 내게로 돌아온다. **70년생** 세상에 나쁘지만 한 일은 없다. **82년생**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폭주하기 마련이다. **94년생** 젊은 나이 들어 싸우든 힘이 있으면 피해를 보지 않는다.
- 47년생** 거짓말 없는 인생이 과연 있거나 할까. **59년생** 작지만, 친구에게 우정의 선물을 주어보라. **71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83년생** 버릴 수 있으니 아직 희망은 있다. **95년생** 산다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만.

김상회의四季 세상을 밝히는 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불교에서는 세상을 일러 욕계(慾界)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탐내고 욕심을 내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 화가 난다. 그러니 탐심에는 화를 내는 진심(眞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한다. 화내고 욕심을 내는 데는 바른 지혜가 없어서이니 당연히 어리석음인 치심(癡心)이 함께한다.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상을 탐치지 삼독으로 돌아가는 오탁 약세 욕계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화로 버무려진 세상을 살아나가고 이겨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얘기한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닌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한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가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아가페적 사랑을 설명한다. 사랑 전도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신을 밀고한 유다까지도 긍휼히 여긴 분이다. 또한,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면 배반한 베드로까지도 연민의 마음을 낸 분이다. 기독교의 대표 가치인 ‘사랑’에 대비되는 불교 실천의 대명사는 자애와 자비이다. 여기에는 사랑이 함께 하는 연민도 포함이 된다.

초기 불교 경전과 숫타니파타에는 ‘자애경’이 있다. 그 내용 중에도 “마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목숨으로 보호하듯이...” 라는 표현이 나온다. 기독교의 아가페적 사랑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자애경에 나오는 구절 중 또 한 대목을 인용해보자면, “모든 세상을 향해, 위아래 그리고 옆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의 없이 무량한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서서나 걸을 때나 앉아서나 누워서나 깨어 있는 한, 자애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거룩한 마음가짐입니다...” 라고. 반반으로 나뉜 국민의 마음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4	5	1	6
1		9	
8	6		4
1		7	4
9			5
3	8		1
7		4	6
	9		2
8	3	2	1

2		5		7	4
		3	6		9
	9	2		6	
		1		2	
8	9				
	7		5	3	
5		6	9		
3	8		4		1

9	1	6	2	8	9	8	7	
2	7	8	9	6	1	8	9	
9	8	7	9	1	6	2	2	
1	2	9	9	6	8	7	2	
8	9	2	9	1	7	8	6	2
7	6	8	2	8	2	9	9	1
6	7	1	8	2	9	2	9	8
8	9	9	6	7	2	2	1	9
2	9	2	1	8	9	8	7	6

1	9	6	7	2	2	9	8	8
2	8	2	6	8	9	7	1	9
9	7	8	9	1	8	2	2	6
9	8	7	2	9	1	2	6	8
8	6	2	8	9	7	1	2	9
2	9	1	2	8	6	9	8	7
8	1	9	8	2	6	9	2	1
6	2	9	2	8	8	7	1	1
7	2	8	1	6	9	8	9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3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73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농업 R&D 예산, 스마트팜 풀림 종자산업 육성 세부방안 모색”

**송미령 농식품 장관 기자간담회
스마트농업 예산 집중 정책 지원 부족
전문가 우려, 종자산업 지원 강화 필요
카이스트와 협약 융복합 인재 양성
농업 R&D 예산 조정 종자산업 촉진**

정부는 그간 농업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스마트팜에 치우쳐 왔다고 보고, 농업의 근간인 종자(씨앗) 산업 육성에도 다시 초점을 둘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장관은 “종자산업은 농업의 반도체라 불린다. 제일 기본”이라며 “전문가들이 종자산업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경기 포천에서 열린 한농촌의료서비스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송 장관은 “스마트농업·스마트팜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R&D 예산도 대부분 디지털 스마트농업 예산으로 상당한 풀림 현상이 생겼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해 오던 종자산업 쪽에 관심을 덜 두고 정책적 지원 등을 다소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어 우려를 농업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향후 농촌진흥청 및 민간 육종가 등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서 이와 같은 R&D, 인재양성 등을 위해 카이스트와 협약을 맺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송 장관은 “카이스트에 농학과 등은 없다. 하지만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장관. /농식품부

도, 자체적으로 대학원 프로그램을 바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4월쯤 MOU(업무 협약)를 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농업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융복합 인재양성을 카이스트와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농축수산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가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늘 있어 왔던 얘기”라며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직 없다”라고 전했다.

다만 “우리 국익, 우리 농업인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불이익 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원칙은 고수하겠다. (또 중요한 점은) 대응함에 있어 신중함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포천시 가산면을 찾은 왕진버스(농촌의료서비스)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혜택을 받는 지역주민 수를 지난해 9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까지 늘렸다”며 “공공이나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천은 수도권에 있고 상황이 좋을 거다 생각했었는데, 도농 통합시여도 중심지에서 떨어진 면 지역이 사각지대인 것 같다”고 했다. 또 “부산·인천 등지에서 의사들이 봉사하러 왔다. 미용실 하는 분들도 하루 시간 내어 왔다”며 “할머니들이 네일아트 받고 손톱 색깔 자랑하시는데 참 기분이 좋았다”고도 전했다.

또 왕진버스 등의 시책이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도 확산시킬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 농촌봉사서비스 모델을 각 지역 농협, 지역 의료원이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남 지역에서 최근 확산한 소 구제역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발생지역이 영암하고 무안인데 2곳 발생은 서로 역학 관계가 없었다. 혈청이 같긴 하지만 2개가 연결돼 있지 않다”며 지역 간 전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고 (확산 방지에) 상당히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제역이 크게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캠퍼스타운 1000개 창업기업 육성

서울시, 서울 소재 20개 대학 대상 AI·로봇 등 첨단산업 인재 집중 발굴

서울시는 올해 서울 소재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캠퍼스타운사업에 약 1000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7년 시작한 서울캠퍼스타운사업은 서울시와 대학, 자치구가 함께 청년 창업가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창업과정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 9년간 서울 소재 39개 대학이 참여해 총 3321팀의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등 1만3954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업기업 1000개 팀을 육성해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 및 인재를 육성한다. 각 대학별로 입주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서울 지역 대학 창업시설의 50%를 차지하는 캠퍼스타운 창업지

원시설을 통해 창업 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미래 경제산업의 먹거리이자 혁신적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를 비롯해 ICT·로봇, 바이오, 창조산업 등 첨단 원천기술을 보유한 우수대학 자원이 원활하게 창업을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대학 창업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체 1000개 육성 기업 중 교내 창업 기업을 40%인 4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교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 시설 입주 조건을 완화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학생 및 교수, 연구원과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 대학 우수 인적 자원의 기술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

전국 의대생 21일까지 휴학계 반려

결원은 편입학 충원 검토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제출한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음에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대학들은 의대생들이 제적되며 발생하는 결원은 편입학을 통해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총협은 긴급회의를 열고 객관적 사유 없이 동맹 휴학에 동참하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전북대와 조선대가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반

려한 가운데, 나머지 38개 대학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총협은 합의사항을 통해 2025학년도에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대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등의 처분도 학칙에서 규정한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제적될 경우 생기는 결원은 편입학을 통해 채우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홍순 교육부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대의 결원”은 소수이긴 하지만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

한전, 부하차단 제도 통해 전력비 2000억 ↓

고객참여로 발전제약 완화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한국전력이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시행해 작년 하반기 구입전력비 2000억원을 절감,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운영한 ‘고객참여 부하 차단 제도’를 통해 약정량 700MW(메가와트)를 확보했다.

‘고객참여 부하 차단제도’는 전력계통 고장으로 주파수 하락 시 한전과 사전에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긴급 차단해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전력계통 안정화 제도다.

한전은 계약유지 및 부하차단 시 정전 리스크 감수에 대한 보상으로 연 1회 운영보상금(1320원/kWh)을 지급하며, 실제 부하를 차단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영업손실에 대해 동작보상금(9만



한국전력이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시행으로 2000억원을 절감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했다.

8400원/kWh)을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

이 제도는 또 기 설치된 변전소를 활용함으로써 투자비가 추가로 들지 않고, 시행 즉시 발전제약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제도 시행으로 동·서해안 지역 발전 계약이 약 1.5GW(기가와트) 완화됐으며, 저비용 발전기를 추가로 운전하게 돼 지난해 7월~12월까지 약 2000억원

의 구입전력비를 절감했다. 향후 매년 약 4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구입전력비 절감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해 국민부담을 완화했고,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했다”며 “계통운영 측면에서는 전력계통 고장 시 주파수 하락 방지에 따른 안정성을 제고해 광역정전을 예방하고 재생에너지 수용성도 향상됐다”고 밝혔다.

한전은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의 경영성과와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 한국의경영대상’에서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를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한편, 한전은 22.9kV(킬로볼트) 이상 전용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 산업용 고객을 대상으로 제도 가입 고객을 추가 모집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온실가스 감축기’ 기술 끌어올린다

환경부, ‘다배출 연구개발 협의체’ 출범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민·관 연구개발 협의체가 출범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서울모처에서 ‘온실가스다배출 산업 연구개발(R&D) 협의체’를 발족하고, 출범 일인 이날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온실가스다배출 업종을 대표하는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 및 17개 기업, 환경기술 전문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향후 이어질 회의에서는 ‘국가온실가

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최신 탄소중립 기술시장 정보 공유를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업종별 필요 기술 논의, 민관 협력 기술개발 과제 발굴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적용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 파악에도 나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술은 ‘환경연구개발 혁신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구체적인 사업 기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우주에 9개월간 체류한 우주비행사 2명, 드디어 무사 귀환
▲트럼프, 민주당 추천 FTC 위원 2명 해임… “불법적 해임” /사진 뉴시스

▲중왕이, 佛에 “소통 강화 필요… ‘정글의 법칙’은 안돼”
▲트럼프·푸틴, 부분 휴전 합의에 日 “계속 주시… 러 긍정 대응 기대”

▲주한 이스라엘 대사 “가자 군사활동 재개 불가피”
▲이란, ‘가자 공습 재개’ 이스라엘 규탄… “인종 청소 지속”



식품·유통업계
주춤 키워드는
책임경영, 신사업
니



Life

제약·바이오업계
골다공증 치료제
경쟁 예고
L2

2025년 10월 30일 (수)



현대차, GBC 내 시민 위한 '대규모 도시숲' 조성한다

'축구장 2배' 규모 녹지공간 조성 지속가능·공공성 상징 공간으로 타워동엔 친환경·AI 기술 등 접목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가 대규모 도심 숲 형태의 시민 개방형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녹지공간은 서울 랜드마크가 될 GBC의 지속가능성 및 공공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 공간으로 역할 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19일 지난 2월 서울시에 접수한 GBC 개발계획 수정 제안서의 디자인을 공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GBC는 242m 높이의 54층 타워 3개동과 전시장,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저층부 2개 동으로 조성된다. 또 단지 중



현대차그룹 GBC 디자인 조감도.

/현대차그룹

양에는 시민들에게 개방된 대규모 녹지 공간이 들어선다.

현대차그룹은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

운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최신 트렌드인 유연하고 수평적인 공간 배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의 도시 품격

을 높이고, 시민들의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구성 단계부터 녹지공간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도심 숲 형태로 조성되는 개방형 녹지공간은 은행나무 단일 수종으로 군락이 형성될 예정이다. 민간이 개발한 복합단지 내 녹지공간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축구장 면적의 2배 크기(1만 4000㎡)에 달한다.

또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GITC) 지상 광장에 인접해 강남 도심권에서 서울광장(1만3207㎡) 2배 크기의 시민 공유 공간이 확보되는 셈이라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GBC의 주 건물인 타워동은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3개동이 서로 엇갈리도록 단지 후면에 들어선다. 타워동에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과

자율주행, 로보틱스, UAM(도심항공모빌리티)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들이 모두 활용될 예정이다.

또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기술 등이 접목되고, 공유 및 협업에 최적화된 유연한 업무공간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강남 일대 주요 명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장기 비즈니스 출장 수요 등에 대응하는 호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GBC 디자인은 포스터 앤 파트너스가 맡으며 영국 블룸버스 유럽 본사와 미국 애플 파크 등을 건축한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GBC 디자인을 총괄한다. 현대차그룹은 3월 중에 서울시와의 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국GM, 세계 최대 서비스센터 서울서 공개

영등포구에 '직영 서울서비스센터' 동시에 최대 100대 정밀진단 가능 "10년 뒤에도 고객이 찾도록 할 것"

"한국은 고객 유지율이 높은 만큼 10년 뒤에도 우리 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탁월한 고객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윌리엄 헨리 GM 해외사업부문 전무)

한국GM이 지난해 7월 오픈한 세계 최대 규모의 GM 직영 서비스센터를 공개했다. 윌리엄 헨리 GM 해외사업부문 전무는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GM 직영 서울서비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투어에서 국내 서비스 품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윌리엄 헨리 GM 해외사업부문 전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GM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투어에서 국내 서비스 품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한국지엠

면적 2만6252㎡(7941평) 규모다. 기존 규모(1만725㎡) 대비 245% 넓어졌다. 또한 첨단 장비 도입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편의성과 직원들의 안전성을 높였다.

이곳에서는 차량을 올려 정비할 수 있는 리프트인 스톨을 총 62개 설치했다.

주차공간도 180대까지 가능하며 고급 휴게 공간도 마련했다. 특히 하루 최대 100대의 차량을 동시에 정밀 진단 및 수리가 가능하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단순히 규모만 늘린 것이 아니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고객이 별도 수기로 접수하는 방식을 거치지 않고 차량 안에서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서비스 레인'을 도입했다. 접수 시간은 최장 10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으며 방문객은 차량에서 정비사에게 요청사항을 전달한 뒤 휴게실에서 간단한 다과를 즐기면 된다.

이처럼 한국GM이 국내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GM 내에서 한국 시장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점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최근 향간에 떠돌던 '한국철수설'도 일축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양성운 기자

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

대한상의·한경협 등 국회서 기자회견
기업현장 혼란, 소송남발 등 부작용 커

경제계가 19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제8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유상범 의원은 "이사와 주주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

여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법률적 분쟁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입법하지 않도록 호소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호소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들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기업현장의 혼란과 소송남발 등 부작용도 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며 "특히 이 법안은 위험 소지가 크다. 이사의 의무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안으로 규정해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내용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역대 최대 규모 '서울모빌리티쇼' 내달 개막

BYD, 로터스 등 12개국 451개사 참가

"전통적인 모터쇼를 넘어 기술의 경계를 허물어 글로벌 모빌리티 행사로 도약할 것입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2025 서울모빌리티쇼'가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진화한다.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는 19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전시회에는 12개국, 451개 사가 참가한다"며 "참가기업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올해 서울모빌리티쇼는 4월 3일 언론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1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강남훈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장

은 "올해는 30년 역사상 가장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의 제품·서비스를 선보인다"며 "육상, 해상, 항공 등 공간의 한계를 넘고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격년마다 열리는 서울모빌리티쇼의 올해 주제는 '공간을 넘어(Mobility Everywhere)'와 '기술은 넘어(Beyond Boundaries)'다. 올해 서울모빌리티쇼에는 12개국 451개사 참여,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양성운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6 | 해질 / 18:44

3월 20일(木)
음력 : 2월 21일

수도권 날씨
1 ~ 1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15, 동두천 -2/15, 파주 -3/14, 가평 -3/15, 서울 1/15, 인천 3/11, 수원 1/13, 양평 -2/16, 용인 1/13, 평택 -2/1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허리 통증' 이정후, MRI 결과 이상 없다... "구조적 손상 없어" /사진 뉴시스
▲부상 우려되는 메시, 아르헨티나 월드컵 예선 명단서 제외

▲NBA 골든스테이트, 밀워키 꺾고 시즌 40승 고지 밟아
▲오페라단연합회 제10대 이사장에 성악가 김수정 선출

▲국가유산청, 양주 회암사지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피츠버그 배지환, 시범경기 교체 출전해 삼진... 타율 0.424

SAMSUNG

Smart LED signage for Building

바로 지금 랜드마크가 되는 빌딩

뉴욕 타임스 스퀘어와 코엑스 K팝 스퀘어,
신세계백화점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곳에 삼성의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15년 연속 세계판매 1위를 기록해온
삼성전자의 디지털 사이니지

빌딩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삼성전자의 글로벌 노하우가
함께 하겠습니다

삼성닷컴 비즈니스 견적문의



* 디스트릭트의 픽셀릭 미디어아트 작품이 사용되었습니다.



* 프리미엄 미디어아트 플랫폼 LED.ART의 작품이 사용되었습니다.



고품질 LED

플리커와 모아레를
최소화한 AI 프로세싱,
HDR10+ 기술

- ※ 플리커(Flicker): 디스플레이 화면이 빠르게 깜빡이는 현상
- ※ 모아레(Moire):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발생하는 줄무늬 패턴

원격 제어 솔루션 적용 (별도 구매)

원격으로 제품 컨트롤이나
상태 모니터링 가능
원격 콘텐츠 배포 가능

※ 지원 기능은 모델별 상이

* 15년 연속 세계판매 1위: 옴디아 Q4 2023 Public Display Report, 판매량 기준. 단, Consumer TV 제외 * 해당 지면의 이미지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들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